

碩士學位論文

濟州島 喪・葬禮 節次에 나타난
‘토롱’의 教育的 意味 研究

指導教授：玄丞桓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高 晶 河

2004年 2月

碩士學位論文

濟州島 喪・葬禮 節次에 나타난
‘토롱’의 教育的 意味 研究

指導教授：玄丞桓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高 晶 河

2004年 2月

濟州島 喪・葬禮 節次에 나타난
'토롱'의 教育的 意味 研究

지도교수 : 현승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제출자 고정하

고정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國文抄錄>

濟州島 喪·葬禮 節次에 나타난 ‘토롱’의 教育的 意味 研究

高 晶 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玄丞桓

인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이를 편안하게 맞이하거나 아니면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우리는 주변에서 사후를 걱정하여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미리 수의를 준비하고 뗏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 여기서 대중들이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사생관을 엿볼 수 있으며, 그것은 상·장례를 통해 나타난다.

상·장례는 사람이 죽은 후부터 망자와 후손과의 이별 과정을 모의적으로 행하는 모든 의례절차를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로서 세계관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례의 하나이다.

濟州島의 장례도 역시 인간이 겪는 통과의례의 하나로 인식하고 중시하여 왔다. 특히 제주도민의 장법은 매장인데, 거기에는 풍수지리설을 포함한 산악신앙, 조상숭배 등의 원시 종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망자는 죽음으로써 후손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풍수지리에 따라 후손에게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있고, 후손은 망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정성들여 장례를 치른다. 이러한 관계의 시간은 4대까지 이어진다.

매장은 1차장과 2차장으로 나뉘어 행해지고 있다. 1차장은 가매장을 말하며, 이를 제주도에서는 ‘토롱’이라 한다. 이는 죽음에 대한 관념의 표현이다. 사람이 목숨이 끊어졌다

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저승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죽음이라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망자와 후손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좋은 곳을 찾지 못하면 가매장을 해 둔다. 이를 1차장 또는 토롱이라 한다. 지관이 좋은 묘지를 선정하면 비로소 2차 장례를 치른다.

토롱에 관한 부분적인 조사는 되어 있지만,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되어 있지 않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는 풍습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의 문화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는 토롱으로 장례를 치렀던 그 시대의 상황, 절차와 방법을 조사하고 장례는 다르지만 현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하여 제주민의 전승의식을 살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의식과 정서를 담고있는 상·장례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는 유교식 의례이다. 유교에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쳐야 하는 사례(四禮)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의례도 본토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제주도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자식들이 골고루 의례에 따른 의무를 지고 있는 점이다. 이는 재산 분배가 균등분배라는 데서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제주시, 북제주군의 경우이고, 서귀포·남제주군은 장남이 주도하여 장례를 치른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 저승을 가는데는 12개의 문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때는 亡者의 살았을 때의 행실과 후손의 정성이 중요하다. 만약 이것이 부족하면 망자의 영혼은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해 여기저기 떠돌다 아무 인간에게 범접하여 재앙의 원인이 된다고 믿고 있다. 망자들이 넋을 달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일은 살아남은 자의 의무이다.

조상의 묘를 잘 써서 자손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장례에서 음택을 고르는 일로 명당을 찾아서 매장을 해야 한다. 명당을 찾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 명당을 찾는다. 이 과정에 ‘토롱’이라는 二重葬制를 일반화시켰으며, 여기에 풍수지리 영향이 가미되어 후손과의 관계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단절이 아니라 4대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喪·葬禮란 한마디로 주검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의례절차를 통하여 죽음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소속감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산 자의 의식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의례는 분리, 과도, 가입의 과정을 거치는데 토롱은 분리 의례 중 가입기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망자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만 되어 있을 뿐 저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은자의 영역 속에 속한 것도 아니다. 완전한 죽음은 1차 장제인 토롱이 끝나고, 명당을 선정한 후 2차 장제를 치러야 완성된다.

제주도의 전통 상·장례 사례를 소재로 한 전설을 국어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국어과에서는 문학적 체험을, 도덕과에서는 제례의 의미를 검토하여 효사상을, 사회과에서는 이를 토대로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교의 긍정적 해석과 장례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03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임.

目 次

<國文抄錄>	i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先行研究 檢討와 研究方法	3
II. 喪·葬禮 節次와 祭儀的 性格	6
1. 濟州島의 喪·葬禮 節次	6
2. 喪·葬禮에서 고려 事項	20
3. 祭儀的 性格	25
III. 喪·葬禮에서 토롱	33
1. 토롱의 事例와 類型	33
2. 토롱의 方法	45
3. 토롱의 意味	48
IV. 教育的 意味	54
1. 토롱에 담긴 說話 教育의 意味	54
2. 토롱의 倫理的 意味	56
3. 토롱의 社會的 意味	58
V. 結論	62
참 고 문 헌	66
<Abstract>	68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인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개인들은 이를 편안하게 맞이하거나 아니면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우리는 주변에서 사후를 걱정하여 종교에 귀의한다든지, 수의를 준비하거나 뭇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행위에서 많은 대중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사생관을 엿볼 수 있다.

喪禮의 사전적인 뜻은 ‘상제로 있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의례’이며, 장례는 ‘시체를 묻거나 화장하거나 하는 의례’라고 풀이하고 있다. 상례 및 장례의 뜻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사람이 죽은 순간부터 시체를 매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 상복을 입은 후 평상으로 돌아오기까지 행하는 모든 의례 절차를 말한다.¹⁾ 장례는 사람을 장사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로서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통과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에 따르는 의례가 상례이다. 한 개인의 죽음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구조에 크거나 작거나 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의미가 內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喪·葬禮를 통해서 변화되는 질서를 다시 세우고 亡者가 남긴 틈을 상징적으로 메우게 된다.

상·장례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보편적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의례인데 돌잔치, 혼례식, 회갑연 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가정 의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절차와 형식은 가정, 종교, 지역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제주의 상·장례를 통하여 제주도민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제주도민의 사생관은 무엇인지를 제주의 상·장례 절차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제주의 장례도 통과의례 가운데 하나로 매우 중요시되어 왔으며, 특히 장법으로 매장을 중시 여기는 풍습이 유지되고 있다. 거기에는 풍수지리설을 포함한 산악신앙, 조상숭

1) 김용덕, 『한국의 풍속사 I』, 도서출판 밀알, 1994, p.267.

배 등의 원시적 종교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제주의 상례 절차가 儒敎的인 생사관 뿐만 아니라 무속과 불교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며, 유가의 생명관은 기독교적 영생이나 佛敎的 往生의 개념은 없으나 인간은 ‘죽음에의 존재’임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죽은 뒤에도 죽은 자와의 유대를 단절하지 않고 제례와 연결되며 이어진다.

지금도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하려는 것은 조상에게서 받은 몸을 죽는 그 순간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孝’라고 하는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비록 죽음을 통해 종신을 하는 것이지만 후손들이 제례를 통해 추념함으로써 죽은 자는 일종의 영생을 향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주의 일반적인 장법은 土葬으로 나무로 造棺하여 장사지내며 다만 고인의 유언이 있을 경우 드문 일인긴 하나 下官할 때에 관을 벗겨 물러내고 退官葬(裸葬)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²⁾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우함으로써 가족과 가문이 영구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 상·장례의 중요한 본질이며 그 절차의 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토롱이다.

濟州島 상·장례 절차에 나타나는 토롱과 비슷한 고구려의 장례 방식을 보면 <수서>에 3년 동안 집안에 빈소를 만들었다는 復葬制 즉 二重葬制가 있었으며, 죽은 사람도 산 사람처럼 대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初殯을 설치했으며, 동 옥저에서는 가매장을 하였고, 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을 헐어버리고 새집을 지어 살았다. 등의 여러 가지 장례 풍속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韓國의 傳統 埋葬 방법은 여러 가지이나 주로 사용된 장법은 토장이다. 그러나 제주의 장례 절차 중 토롱은 장례를 지낼 여건이 안될 때는 第一次 葬인 토롱으로 매장을 하는 관습이 있다. 타지방에서 행하여 졌던 初殯, 草墳, 구토롱, 가매장과 유사하나 절차나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중장제의 하나인 토롱의 특징을 濟州島 상·장례의 절차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풍습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분석하여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2) 제주도, “제주민의 통과의례”, 『제주의 민속①』, 1993, p.360.

2. 先行研究 檢討와 研究方法

상고시대 부족국가의 장례 절차는 『삼국지』, 『후한서』 등의 동이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으며 고려 이전 삼국시대의 장례 절차도 중국의 역사책과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먼저 『삼국지』에는 부여의 장례풍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여름에 죽으면 얼음을 채워 두고 또 사람을 죽여 순장한다. 순장하는데 있어서 사람을 많이 죽일 때에는 백여 명까지 죽인다. 그리고 장례를 후하게 지내는 사람은 관은 있어도 곱은 없다. 위략(魏略)에 보면 이 지방 풍속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다섯 달 동안 집에 두는데 오래 둘수록 좋은 것으로 여긴다. 죽은 사람을 제사지내는데는 음식을 날것으로 장만하고 익힌 것으로도 한다. 상주된 사람은 되도록 장례를 빨리 지내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익지로 못 지내게 한다. 상을 치르면서 남녀 모두가 흰옷을 입고 여자는 목걸이나 패물을 빼놓는다. 이런 풍속은 대체로 중국과 비슷하다.

그리고 『전서』에는 여자들이 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다고도 하였다.³⁾ 또한 『수서』에는 고구려의 상·장례 절차를 다소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죽은 사람의 집안에 빈소를 만들어 놓았다가 3년이 지난 뒤에 길일을 가려서 장사를 지낸다. 부모나 남편이 죽었을 때는 모두 3년 복을 입고 형제간에는 석 달을 입는다. 초종례를 치를 때는 모두 곡을 하고 울지만 장사를 치르고 나면 복을 치고 춤추면서 풍류를 아뢰어서 죽은 이를 보내는 예를 베푼다. 매장이 끝나면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입던 옷과 수레와 말을 가져다 무덤 곁에 두는데 장례에 온 사람들이 다투어서 이를 가지고 간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공경하며 음사(淫祀)가 많다.⁴⁾

남쪽지방인 한나라는 장사 지낼 때 관은 쓰지만 곱은 안 쓴다든지, 동 옥저에서는 곧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가매장하는 풍속이 있었다는 등은 지역과 시대 그리고 풍습에 따라 장례가 변화되며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孔子는 상례를 ‘생의 마지막을 신중히 맞이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는 의례’의 하나로 중시하며 여겨 삼년상을 천하의 통상이라고 하면서孝와 관련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3) 김용덕, 전계서, 도서출판 밀알, 1994, pp.270~271.

4) 김용덕, 상계서, 도서출판 밀알, 1994, p.272.

반면에 그것이 비능률적이고 사치스런 허례라고 비판하면서 기년상과 薄葬을 주장한 黻子 같은 사상가도 있었지만 유가에서는 삼년상을 효와 관련시킴으로서 상례를 유교를 상징하는 의례의 위치에 고정시켜 부모나 여러 친족이 사망한 뒤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의식과 절차를 제도화시켰다.

고구려에서 3년 동안 집안에 빈소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이중장제를 뜻하며 죽은 사람도 산 사람처럼 대접했음을 뜻한다. 임시묘소라 할 수 있는 第一次 葬인 ‘초빈[初賓]’을 설치한 것이 조선조까지 이어져 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례에 대한 장례 절차나 장묘 제도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고 꾸준히 변화되며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율곡이 지은 매월당 본전에 따르면 김시습은 죽으면서(성종 24년, 1493년) 유언하기를 화장은 말라고 해서 절 옆에 초빈을 하여 모셨다가 3년 뒤 장사를 치르려고 빈소를 열었더니 몸이 썩지 않고 얼굴빛이 살았을 때와 꼭 같아서 스님들이 몹시 놀라고 감탄했다고 하였다.

초빈은 집안에서 임시로 시신을 안치하는 제도인데 집안의 빈방이나 헛간 등 한적한 곳에 만든다. 북·동·서의 3면을 나무로 엮어서 흙을 발라 벽을 치고 지붕은 풀이나 짚으로 덮으며 남쪽의 터진 곳으로 관을 밀어 넣고 남쪽도 완전히 막는다. 초빈 근처에 喪次라는 상주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여 아침, 저녁 생사와 같이 상을 차려 올린다.⁵⁾ 이와 비슷한 장례풍속은 남해안 지방에서 행해졌던 草墳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장법으로 濟州島 喪·葬禮 節次에서는 第一次 葬으로 토롱을 하는 이중 장제가 있다.

제주도의 전통 장례에서 이야기되는 토롱에 대해서는 『제주의 민속 I』에서 제4장 장례편에 장법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토롱에 대한 지역적 차이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또 매장에 앞서 행하는 第一次 葬인 토롱에 대해 조사된 사례가 없어 필자는 직접 제보자를 방문하여 각 지역에서 구전되고 있는 사례를 녹음하고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장법의 변화로 거의 치르지 않은 장법이고 오래 전에 행해졌던 사례여서 토롱으로 장례를 치르던 당사자들은 거의 사망했고 토롱을 지켜보았던 제보자들의

5) 김용덕, 상계서, 도서출판 밀알, 1994, pp.273~274.

기억도 확실하지 않아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연구는 토롱으로 장례를 치렀던 시대의 생활상과 토롱의 원인, 절차와 방법을 조사하고 장법은 다르지만 요즈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토롱에 나타난 제주민의 의식을 분석하여 제일차 장으로 치러졌던 그 시대의 사회상을 해석하여,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옛날의 삼년상이던 상·장례 절차가 지금은 백일이면 끝나고 매장 중심의 장묘 제도는 화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전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별도의 시설물 즉 병원 영안실이나, 동네 상여막 등이 있어 소렴, 대렴의 절차가 무의미해지는 등 상·장례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장례 절차에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치러졌던 토롱도 사라지고 장의사나 병원 영안실 장례로 변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 개념인 ‘孝와 禮’의 사상마저도 도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장례문화의 정립을 통해 ‘孝와 禮’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교육방법을 모색하고 이러한 상·장례를 통과의례로 구분하여 볼 때, 토롱은 분리, 과도, 가입의 과정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제의적 성격을 논의해 보려 한다. 그리고 토롱이 산자와 死者 중 누구를 위한 상·장례인지, 구전되는 사례를 통하여 토롱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풍수설화 이야기를 설화교육의 차원에서 반영시키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孝와 禮’의 가치 개념을, 사회적 측면에서는 변화되는 가족의 개념을 분석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교육적 의미로 승화시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II. 喪·葬禮 節次와 祭儀的 性格

우리 민족의 전통 의식과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喪·葬禮 중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관행시 되고 있는 것이 유교식 상례이다. 그 이유는 유교가 규정한 사례[四禮]중의 하나가 상례이며, 조선시대에는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여 그 관행을 법제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관행되고 있었던 무속적인 상례의 관념과 유사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문화적인 별 충격 없이 정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濟州島의 장례도 유교식 상례에 가까우며 濟州島 장례 절차에 나타나는 第一次 葬인 토롱도 풍수의 영향이 가미되어 풍습으로 전승되는 가매장의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1. 濟州島의 喪·葬禮 節次

장례의식에 대한 모든 절차는 보편적으로 관습에 의하고 상주들에 의해 치러진다. 여기서 장자가 주상이 되며 상주들 의견이 갈릴 때는 주상인 장자의 의견이 존중되어 상·장례 절차가 진행되며 이를 당연시하는 관습이 있다.

망자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관, 산티(뫼자리), 수의 등을 준비해 두기도 하여 지금도 시골에 가면 나이 든 어른들이 가봉분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면서 사후를 준비하기도 한다. 관혼상제의 풍속은 지역이나 가문가례로 조금씩 다르나 제주의 상·장례 절차는 대강 다음과 같다

임종→수시→초혼→염습→조관→입관→출구→발인→운상→하관→성분→초우→귀양풀이→재우→삼우→졸곡→소상→대상→시왕맞이→담제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상례를 마치게 된다.

이외에도 상·장례 절차에 따르는, 장례 시 금기사항, 묘지형태, 등이 濟州島 상·장례 절차에서 고려되는 사항으로 상가와 주변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1) 臨終

임종이란 운명 혹은 終命이라고도 하는데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세상을 하직하고 영원한 이별이 시작되는 자리이므로 보통 망자의 자녀들이 지키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임종을 못 지키는 것이 불효에서도 가장 큰 불효가 된다고 한다. 물론 임종을 지키는 일은 친구나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자리에서 환자는 유연도 한다. 망자 눈이 안 감길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식들이 눈을 쓸며 ‘아무걱정 말고 길을 떠나시라.’고 이야기하며 임종을 맞이한다.

흔히 망자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가족이나 친지를 보지 못해 눈을 감지 못한다고 하므로 임종 순간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승에서 못 다한 일이 있으면 눈을 감지 못한다고 하여 망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시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눈을 감기기도 한다. 이때 망자의 유언이 있으면 기록해 둔다. 그런데 남자의 임종은 여자가 지키지 않으며, 여자의 임종은 남자가 지키지 않으나 자손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즈음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약물을 주사하여 임종을 어느 정도 늦추어 망자가 보고 싶은 가족이나 임종을 보려는 가족이 볼 수 있도록 배려하여 가족의 서운함을 더는 경우도 있다.

2) 속광(屬纊)

환자의 손과 발을 잡고 환자가 마지막 숨이 거두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 헛숨을 환자의 코밑에 대놓고 환자의 숨을 그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속광이라 한다. 숨이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숨을 완전히 멈추지 않았을 때 곡성이 요란하면 운명하는 이가 순간이나마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이 혼란할까 염려되므로 가족은 울음을 참고 경건한 마음으로 운명을 기다린다. 그러나 요즈음은 심장박동을 체크하는 심전도나 산소 호흡기 등을 통해 운명을 확인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재기도 한다.

3) 정제 收屍

병자가 숨을 거두면 가족들이 자연 시신을 붙들고 울게 되는데 초종의 범절에 익숙한 사람이 가족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 시신이 굳기 전에 눈을 곱게 감겨드리고 몸을 반듯

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곧게 뻗도록 주무른 뒤 다리를 가지런하게 모아 발끝이 위로 가게하고, 양손은 옆으로 나란히 한다.

그리고 머리는 약간 높게 괴고, 북쪽으로 눕히고 白布로 얼굴을 씌운 다음 흠이불을 머리까지 덮어둔다.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으며 마지막으로 측근들이 뵈고 나면 휘장이나 병풍으로 시신을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밝힌 후 중앙에 향을 피우고 곡을 한다.

요즈음에는 이런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고 또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이런 일을 기피하여 거의 장의사에서 이 일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시신의 안치는 병원 영안실이나 공동묘지 영안실을 이용한다 그런데 이 수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손발과 몸이 뒤틀리고 오그라드는 경우가 생기므로 정성을 들여야 한다.

4) 招魂

招魂을 梟復 또는 魂을 부른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흐트러진 혼을 불러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다. 전통장례에서는 시신을 보지 않은 사람이 지붕위로 올라가는데 남상일 때는 남자가 올라가고 여상일 때는 여자가 죽은 사람의 속적삼을 들고 올라가서 혼을 부른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의 장례에서는 거의 남자가 혼을 부르며 가족 중에 혼을 불러줄 사람이 없으면 동네 사람을 모셔다가 혼을 부르기도 하지만 여자가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혼을 부르는 사람은 망자가 늘 입던 옷을 시신 위에 덮어두었다가 지붕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고인의 주소, 본관, 생년월일, 사망일시를 부른 다음 망자가 혼장을 지냈으면, ‘○○○公 ○○○訓長 ○○復’이라고 세 번 외친다. 그러나 復이라 하지 않고 魂이라 하기도 하며 어떤 분은 ‘어어이, 어어이’ 하고 부르기도 한다.

招魂을 하는 사람은 큰 상주가 하는데 큰 상주가 없으면 그 집안에서 대표될 만한 사람이 한다. 그러나 요즈음은 혼을 부르는 사람을 빌어다 혼을 부르기도 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관에서 북쪽이라 생각되는 곳을 향하여 혼을 부르기도 한다. 이때 사용했던 옷은 진설된 혼백상에 혼적삼으로 놓아두었다가 매장 때에 같이 묻는다. 만약 그 마을에 흥역이 유행할 경우에는 초혼을 중지했다가 장지에 가서 초혼하는 게 풍습으로 되어 있다.

5) 사자 밥

한국의 전통장례에는 사자 밥 세 그릇과, 술 석 잔과 짚신 3결레, 백지 한 권, 북어 세 마리, 약간의 동전을 엮어 놓고 촛불을 켜서 작은 상이나 채반에 차려 뜰 아래나 대문 밖에 차려놓아 둔다. 그러나 제주의 장례에서는 이런 사자 밥을 차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것은 임종이라는 큰일을 맞아 시간적으로 경황이 없었다고도 하고 아예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초상은 슬픈 일인데 부모나 가족을 잡아가는 저승사자를 무엇이 반갑다고 사자 밥을 내어 대접을 하느냐는 풀이도 있다. 저승사자에 대한 사자밥 이야기는 제주의 상·장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이런 풍습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해짐을 알 수 있다.

6) 호상옷

염습할 때 입히는 수의를 호상옷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는 변변치 못하게 살았지만 저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내세관이 반영된 것이다. 제주민들은 죽어서 입을 호상옷을 화려하게 꾸미려 하고 나이가 들면 호상옷을 마련해 두기도 하며 호상에 드는 비용을 아끼지도 않는다. 호상 옷은 윤달에 만들어 방의 궤 속에 보물처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 두는 경우가 흔하다. 호상 옷의 재료는 명주를 최고품으로 여기고 베로 만들기도 하나 무명이나 모시는 피한다. 그 이유는 무명은 흔히 변하기 쉽고, 모시로 호상 옷을 만들면 자손에게 새치가 생긴다는 속신 때문이다.

여자들은 경우에는 혼인할 때 圓衫을 만들어 입었다가 환갑 때 입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호상 옷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남자의 호상 옷으로는 도포를 마련하여 회갑 때 입었던 도포를 잘 간수했다가 호상 옷으로 삼았다. 이때 청색물 들인 도포를 값어치 있게 여겼지만 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통은 하얀 도포가 흔히 쓰였다. 호상 옷의 색깔은 물색을 고급으로 쳐서 호상옷의 색깔로 집안의 생활정도를 짐작하곤 한다.

제주도민의 수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 대다수 노인들이 윤년이든 윤달에 수의를 마련하고 주인공이 이 옷을 입고 춤도 춘다 하는데 아마도 사후에 대한 걱정을 해결한 홀가분함이 표출인지도 모른다

제주 속담에 '살아서 한번 호스 죽어서 한번 호스'가 있다. 이승에서 혼례를 치르면서

만인의 축복으로 한번 호사하고 죽어서는 수의를 입고 초상을 치를 때 술한 사람들이 서러워하므로 호사한다는 뜻이다.

7) 殮襲

香湯을 큰그릇에 떠서 시신을 깨끗이 씻는다.

상주는 망자의 입에 얼마 가량의 쌀을 넣어주는데 이때 쌀은 물에 약간 불렀다가 넣으며 쌀로 만든 떡 9개를 양손과 가슴에 각각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제주 지역에서는 거의 생략하고 있다. 이것들은 망자가 저승까지 가는데 사용할 양식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방에서는 원미라고 해서 소량의 쌀을 입에 넣는 경우는 있어도 떡을 손에 쥐어주는 경우는 없어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호상옷을 입히고 두릅포 (베 12척)로 시신을 감은 뒤 7묶음으로 묶는다.

호상옷을 바느질 할 때는 끝매듭을 맺지 않는다. 손에는 명주로 만든 장갑을 끼운다. 또한 소랑(대랑)이라고 창호지로 주머니를 자그맣게 5개 만들어 망자의 머리털을 몇 개 잘라 넣고는 머리 쪽에 넣고 左足, 右足, 左手, 右手의 발톱, 손톱을 따로 따로 깎아 담고는 각각 그곳에 넣는다. 혹은 머리털이나 발톱, 손톱을 깎아 넣는 일 없이 주머니만 만들어 각각 머리와 양손과 발에 넣기도 한다. 단지 주머니 2개를 만들어 左足, 左手의 발톱, 손톱을 넣은 것을 왼쪽 허리에 右足, 右手의 발톱, 손톱 넣은 것을 오른쪽 허리에 달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 '소랑'을 생략하는 지방도 있다.

8) 造官

관은 상가에서 부탁한 목수가 상가 마당에서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관의 재료는 보통 소나무인데 상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느티나무, 벗나무 등 다른 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관의 재료가 다른데 구좌지역에서는 비자나무 관을 선호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장의사에서 소나무나 오동나무 등으로 조관한 관을 가격에 맞추어 사용하고 상가에서 조관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옛날에는 관 안을 모두 창호지로 도배하고 밑널 안쪽에는 칠성 그림을 직접 파거나 그렸다. 지금은 밑널 안쪽에 도배하는 창호지에 칠성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서 칠성 그림

을 대신하는 게 보통이다.

9) 入棺

수의나 상복을 만들 때 만들어 둔 天衾과 地衾을 명주로 지어 두었다가 입관 시 지금은 시신 밑에 깔고 천금은 시신 위에 덮는다. 그러나 현재는 창호지로 천금과 지금을 만들어 대신하기도 하며 천금과 지금 속에는 雪綿子를 넣는다. 이렇게 입관이 된 뒤 빈곳은 망자의 옷이나 형짚으로 모두 채운다. 이때 화학 섬유로 만든 옷은 넣지 않고 대개 면으로 된 옷으로 채워 넣는다.

옛날에는 벗짚을 잘게 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시신의 베개는 보통 베로 만들었으며 그 속에는 모래나 흙을 넣기도 하였다.

입관 때 망자는 10도막내지 12도막으로 묶었던 것을 풀고 입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망자를 자유스럽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만에 하나 망자가 저승 문턱에서 되돌아와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서 몸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실지 조사 중에 성산읍 오조리에서 입관한 관속에서 살아 나왔다는 김평길 여사 이야기를 들었다.⁶⁾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5일장인가 7일장이 나서 아들인 상주가 하루는 상 앞에서 꾸벅 꾸벅 졸고 있는데 관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관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깨어나며 ‘아! 좀 잘 잤져’ 하면서 일어나 마을에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입관이나 하관을 할 때는 망자와 띠가 상극이거나 그 해에 피해야 할 띠는 보지 말라고 한다. 택일할 때 택일 적은 종이에 적기도 하고 地官이 이야기하기도 하며 또 이장할 때도 보지 말라는 띠가 있으면 피하기도 한다

10) 喪服

운명하면 상제는 우선 버선·양말 따위를 벗고 아래옷을 걷어올린다. 옛날 상투를 매던 때에는 상투를 풀어서 짚으로 집어 매곤 했다.

수시 후 상제는 통 두건을 쓴다. 옷웃도 한쪽 팔을 빼 버리고 한쪽 팔만 끼워 입는다.

6) 제보자 : 성산읍 오조리, 오홍부(72세), 2003년 3월 오조리.

입관한 다음에야 제대로 상복을 입고 성복제를 치른다. 상복을 입을 때 짚으로 매었던 상투도 향탕으로 세수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잘 고쳐 매었는데 예전에는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상투를 다시 손질하지 않은다는 금기가 따랐었다.

상제의 두건을 만드는 바느질 방법도 상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부상이나 조부 상일 때는 실밥을 밖으로 내어 두건을 만들고, 모상이나 조모 상이면 보통 두건처럼 만들어 놓고 옷 끝을 다시 한번 바깥으로 바느질한다. 부상이나 조부 상일 때 남녀 상복 모두 옷자락 끝을 접어서 바느질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감친다. 남상제의 상복에는 등뒤 좌우와 앞가슴 좌우에 베 형겅을 다는데 이는 조상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의무를 표상한다. 그러나 요즈음 상복에는 보편적으로 등뒤에 베 형겅을 다는 상복을 입고 있어 상복도 변하고 있으며 검은 양복을 입고 상장만 두르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여 상제는 예전부터 복수건을 쓰는 게 관행이지만, 머리 위 넓이의 갑절쯤의 베 형겅을 쓰고 건대를 동그랗게 두르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여 상제는 베로 지은 복치마 흰 저고리를 입으며 행상할 때에는 복 수건 외에 베너울을 쓰기도 한다.

상장으로는 왕대와 머귀나무를 쓴다. 곧 부친상이나 조부 상이라도 사손이면 왕대를 다섯 마디 잘라 사용하며 모친 상, 또는 조모 상이라도 사손이면 머귀나무를 상장으로 쓴다.

11) 成服祭

성복제는 입관을 하고 성복한 다음 치르는 제례이다. 성복제는 상사에서 첫 제례라는 뜻을 지닌다. 그 집안에 있는 물품으로 제물을 차린다지만 한편으로는 성복제 때 차렸던 제물이 삼년 상을 마칠 때까지 그 종류의 제물을 다시 차려도 영혼이 제대로 감응한다고 하는 관습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메와 갯,

- 채소 : 콩나물, 고사리, 미나리, 목탕시 등
- 젓갈 : 돼지고기, 소고기, 상어고기 등
- 구운 바다고기, 메밀 묵
- 과일 : 귤, 사과, 배 등
- 떡 : 찢떡, 약과 떡, 솔벤, 절벤, 기름떡 등

그러나 요즘은 장례절차도 간소화되어 표준 성복제 제물을 차려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의 편리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12) 上食

초혼을 하고 사자에게 새로운 의복을 입히고 시체가 굳어지기 전에 몸을 서너 군데 묶어두는 소렴이 끝나면 시체를 안치한 방 앞에 병풍을 두르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의 식사를 올린다. 이것을 상식이라 하는데, 이 상식은 장사 후에도 사령을 방안에 모셔서 대상까지 매일 계속한다. 이것은 제의는 아니지만 공양의 의미가 있다.⁷⁾ 그러나 지금은 장례식 전까지는 상식을 하고 장례를 마친 다음에는 상식하는 풍습이 사라지고 2年喪도 1年喪으로 심지어는 백일 탈상으로 이어져 상례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3) 토룡(土壟)

장례 택일 날짜가 알맞게 나지 않거나 얼른 묘 자리를 구할 수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할 때, 임시로 가매장을 하는데 이것을 제주지역에서는 토룡 또는 구토룡이라고 한다.

짚으로 이엉을 덮어 늘 처럼 만든 생빈놀이 만들거나 야산에다 가매장 해두었다가 택일을 하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와 산 터까지 구하였는데 장례 택일이나, 작(방향)이 맞지 않아 성분을 못하는 경우 용미·제절만 뽑지 않았다가 그 장애 요소가 해소되면 봉분을 완성시키는 장례방법으로 토룡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염습한 다음 집 주변이나 야산에 관을 매장하거나, 광 속 밑은 나무로 받쳐 관이 아주 지면까지 닿지 않도록 하여 솔잎이나 풀을 덮고 위에 이엉, 곧 느릅지로 두른 다음 띠나 짚으로 주쟁이를 꼭대기에 덮어 생빈놀 방법으로 모셔둔다든지 아니면 산터에다 봉분을 만들고 龍尾·階節을 빼지 않는 방법으로 토룡을 했다.

토룡의 사전적 의미는 ‘흙을 쌓아서 만든 약식의 무덤 또는 토분’이다. 일종의 가매장, 즉 복장제에서 第一次 葬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제주 지역에서 토룡을 했던 풍습을 보면 가매장하는 第一次 葬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토룡 풍습에 내포되어 있다.

한 예로 옛날 구좌지역 어느 한 상주는 아버지가 운명하였는데 마땅한 음택을 구하지

7)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99. p.362.

못해 여름에 임종하였는데 겨울이 되어 신구간에 장례를 치렀다⁸⁾는 이야기라든지, 콜레라에 죽은 사람들을 토롱했다가 콜레라가 잠잠해지자 정식 장례를 치렀다는 걸 보면 토롱은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할 때는 가매장하였던 것이 풍수의 영향이 가미되면서 명당을 구하기 위한 토롱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면 용미·제절을 만들지 않았다가 나중에 용미·제절만 완성시키는 방식이 변형된 토롱을 하기도 한다. 이 방법은 지금도 행해지는 장례 방법의 하나로, 제주도의 이중장제에서 第一次 葬 토롱이 현대에는 이중장제가 아닌 一次 葬으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濟州島에서 행해진 토롱과 가매장을 같은 의미 즉 이중장제에서 一次 葬의 뜻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14) 日晡祭

성복제가 끝나면 친족과 동네 사람들이 문상을 시작하는데 日晡祭 때 비로소 제의로써 격식을 차린다. 일포는 산 자와 죽은 자와 헤어지는 이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장례식 전날 행하는 제로 아침에 영전에 설찬하고 땃을 하고 재배한 후 조문객을 맞는다. 일몰 시에 일포제를 지낸다. 이때 축을 고하는데,

‘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柩車 式遵祖道’

<영원히 가시는 예이 오며 좋은 때가 머무르지 아니 하와 이제 상여를 받들겠사오니 옛 조상들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⁹⁾

라는 일포축을 고한다. 제물은 일부지역에서는 만딸인 여 상제가 차리는 게 관행이었다. 그런 지역에서 만딸을 낳으면 일포제감 낳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제주시 동부지역에서는 봉분을 하고 나서 산소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초제를 만딸인 여 상주가 차리는 관행이 있어 만딸을 낳으면 초제할 딸을 낳았다고 하는 걸로 보아¹⁰⁾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다.

8) 제보자 : 문상주, 구좌읍 세화리,(54세), 2003년 1월 세화리.

9) 제보자 : 서귀포시 호근동 김경행(62세) 2003년 1월 서귀포시

10) 제보자 : 구좌읍 상도리, 부두방(58세) 2003년 8월 제주시

15) 土神祭(山神祭)

장지에는 미리 토신제를 지낸다. 이 때 제관은 상가에 와 본 일이 없고 부정치 않은 사람이어야 하므로 다른 동네 사람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토신제는 택일된 시간에 장지에서 치러지며 그 제물을 보면

- 메 4기 : 원래는 입쌀, 찰쌀, 기장쌀, 피쌀로 1기씩 4기를 마련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신 입쌀 메 2기 노란 좁쌀 메 1기 포함 4기를 마련한다.
- 과일 5종 : 귤, 대추, 비자, 밤, 사과 등
- 쇠고기 또는 돼지머리 1두 또는 생닭 1마리
- 상어 혹은 명태 1족
- 미나리 채와 무채(생으로) 1기
- 청감주와 생감주 각각 1병
- 폐면 : 명주 또는 마포 1필(올만 떼어서 불태운다)

상가에서는 토신제를 의뢰한 제관에게 제수비용을 넉넉하게 받드시 전하며 산신제의 제의 형식은 마을 단위로 음력 정초에 치러지는 포제의 제의와 비슷하다.

이때 축을 고하는데

維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 幼學 金○○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處士 慶州 金公 ○○

窳慈幽宅 神基保佑 俾無後艱

謹以清酌 庶羞哀薦 于神 尙

饗

<모년 모일 감히 유학 아무개는 토지지신에게 고합니다. 이제 아무개 묘를 마련하니 신께서 도우셔서 잘 보호하여 주시고 후환이 없도록 하여 주소서 삼가 맑은 술과 포혜를 갖추어 올리오니 흠향하소서>¹¹⁾

11) 제보자 : 북제주군 구좌읍 상도리, 정지수(73세) 2003년 8월 제주시

16) 出柩

장례를 주관하는 친족대표가 관을 옮긴다는 의미로,

‘今以吉辰 遷柩敢告’

<이제 좋은 날이라 관을 옮기려 합니다>¹²⁾

하는 간단한 내용의 간단한 축문을 읽으면 출구를 맡은 사람들이 관을 세 번 들었다 놓았다 한 후 출구가 시작된다. 이때 문이 삼살 방인 경우면 예전엔 삼살 방이 아닌 벽을 뚫어서 출구했다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출구시 관에 덮어져 있는 이불은 반듯하게 덮지 않고 좀 비스듬하게 해야 하고 관을 문지방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금기사항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망자의 직계 존속이 병을 앓고 있으면 환자를 관이 지나가는 길목에 눕히고 나서 관을 그 위로 옮기면서 내 병을 가져가 달라는 부탁을 하며 병을 치송하는 등의 행위는 후손이 어려움을 조상에게 의지하려는 의식에서 생긴 풍습이다.

17) 發靱

영구가 장지로 떠나는 것을 發靱이라 한다. 출구시에는 간단하게 마당에서 발인제를 지내는 게 보통인데 운상을 시작하는 대로에서 상여에 관을 얹은 다음 발인제를 지내는 마을도 있다. 이때도 축을 고하는데

靈柩既駕 往卽幽宅 載陳遺禮 永訣終天

<상여로 모셔 이제 떠나려 합니다. 가지면 곧 무덤으로 가옵니다. 영원히 보내는 예를 올립니다>¹³⁾

라는 내용의 축을 고한 후 출발한다. 이때 상여는 상여계가 있어서 계원들에 의해서 지은 상여막에 보관되는 것이 보통이다. 계원이 아닌 자가 사용할 때는 당연히 임대료를

12) 제보자 : 서귀포시 호근동 김경행(62세) 2003년 1월 서귀포시

13) 제보자 : 서귀포시 호근동 김경행(62세) 2003년 1월 서귀포시

내야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거의 다 영구차를 사용하고 있어 상여는 민속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민속품이 되고 있다

18) 運喪

喪家에서 묘지로 상여를 옮기는 것을 뜻한다. 風水說에 의해서 묘지는 보통 멀리 떨어져 있다. 원거리에 있는 묘지까지 상여를 메고 간다는 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상여꾼들이 상여를 어깨에 메고 묘지로 향하는데 보통 마을을 벗어나면 선창자의 노래 ‘저승길이 멀다 하나 죽고 나니 저승이요’ 하면 상여꾼들과 조문객들이 후렴으로 ‘어어 영차, 어어 영차’ 등의 상여노래를 부르면서 장지로 향한다.

장의 행렬 순서는 붉은 비단으로 된 명전을 선두로 魂魄床(사진, 혼적삼 :보통 여상주가 든다), 다음에 輓章이 따르고 ‘설베’가 양 옆으로 늘어선다. ‘설베’의 원래 기능은 상여가 험한 산으로 올라갈 때에 잡아당기는 베라고 하나 지금은 흔히 광목을 상여 앞 좌우로 길게 늘어놓을 뿐 원래의 기능은 거의 없어진 실정이다. 상여 다음으로는 상제들과 복친, 그리고 고인의 친지들과 조문객이 뒤따른다. 부인들은 상여노래의 후렴을 부르면서 따라가다가 묘지가 원거리면 중도에서 귀가하기도 한다. 상여가 묘지로 가는 도중 가끔 쉬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상주들이 길순(참)을 먹이면서 상여꾼을 극진히 모신다. 그렇지 않으면 상여꾼들이 상여를 정성스럽게 모시지 않는다는 풍속 때문이다. 이때 길순(참)은 딸 상주나 친척 중에서 부조로 길순(참)을 맡아 먹이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상여를 메고 가지 않고 영구차로 운송하며 길순(참)이라 해서 떡 같은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없어졌다. 그 대신 나타난 것이 장지에서 나누어주는 답례품 관행들이다.

19) 下官

관이 땅속으로 묻히는 것을 뜻한다. 하관할 시간이 되면 결관을 풀고 방위에 맞추어 정성껏 관의 평형을 유지시키면서 하관이 시작된다. 하관 후 우선 명정을 풀어서 관 위에 덮고, 상제들은 관 양쪽에 마주 서서 두 번 절한 다음 하관제를 지낸다.

하관 시 관에 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금기 때문에 상주들은 돌을 철저히 골라낸다. 관 위에 개관을 덮는다. 개관은 보통 나무인데 이제는 대리석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하

관이 끝나면 상주들이 조문객과 상여꾼들에게 술잔을 권하면서 봉분을 만들 작업을 특별히 부탁한다.

20) 成墳

봉분을 쌓는 일을 말한다. 濟州島는 박토여서 봉토를 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여꾼들이 중심이 되어 노래를 부르면서 봉토를 파서 질투 맥으로 나른다. 이때 진토긋 노래가 불려진다. 봉분이 반쯤 완성되었을 때 달구질 소리를 하면서 봉분을 잘 다졌다. 봉분을 잘 다져야 튼튼하게 만들어져 망자가 천 년 만 년 편안히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상주들은 정성스럽게 이 일을 했고, 달구질하는 사람들에게도 특히 부탁을 하기도 한다. 망자는 개관이 썩어서 무너지는 소리로 놀라고, 개관이 무너지므로 봉분의 흙이 아래로 떨어질 때 놀래서 두 번 놀랜다는 것이다. 망자가 놀랜다는 것은 좋은 일이 못된다. 그러므로 봉분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여 봉토에 석회를 섞어 사용하는 마을도 있다. 성분이 끝나면 제관을 정하여 墓左 上에서 토신제를 지낸다 이때 축문은

維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幼學 ○○敢昭告于

土地之神今爲處土 某封某公 窆茲幽宅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清酌

脯醢 紙薦于 神 尚

饗

<유학 아무개는 감히 토지신에게 고합니다. 이제 처사 아무개 공의 유택을 모두 이루었사오니 토지 신께서는 잘 보호하여 주시고 후환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¹⁴⁾

하고 토롱 형식의 묘에서는 평토제를 지내지 않고 성분이 완성되어야 축을 고한다

21) 初虞祭

성분이 끝난 다음 산소에서 첫 번째 제사를 지낸다. 혼령을 위안하기 위해 당일 넘기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데 보통은 봉분이 완성되면 바로 제를 지낸다. 장지에 왔던 조문객들도 초우제를 지낼 때 배례를 하면 조문을 한 걸로 생각하여 조문객들은 산을 내

14) 제보자 : 서귀포시 호근동 김경행 (62세) 2003년 1월 서귀포시

러가고 상가에서는 무덤가 뒷정리를 하고 산을 내려간다. 그러나 요즈음은 초·재·삼우를 합제하여 지내므로 그에 따른 축을 고한다

維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 孤子 ○○

敢昭告于

顯考處士府君 日月不居 奄及初虞 事勢不逮

禮畢終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清酌 庶羞哀薦 成事 尙

饗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우제가 되었습니다. 형편이 미치지 못하여 우제를 끝마치려 하오니 밤과 낮으로 슬퍼 사모하여 편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많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¹⁵⁾

육지에서는 초우제가 끝나고 영좌를 모시고 돌아올 때에는 곡을 한다. 이것을 반곡이라 하는데 곡이 끊어지면 혼백이 따라오지 못하므로 집에 올 때까지 해야된다고 믿었다. 반곡례를 끝으로 장례 절차는 끝을 맺는다.

22) 귀양풀이

제주의 장례 절차는 유교의식으로 치러지다가 거기에다 무속공양의례인 귀양풀이가 끼어 들어 장례를 치른 날 초우제를 행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날밤에 행하는 巫儀이다. 저녁에 망자의 영혼을 위무하고 저승길로 잘 인도해 주도록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는데 이를 ‘귀양풀이’라 한다. 보통 제물은 초우제 제물에서 남겨두었다가 차리는데 그 외에,

- 시라 목 1필
- 과일 : 사과, 배, 귤 등
- 소지(백지) 7권
- 메와 국 각각 7그릇
- 바다고기 7개

15) 제보자 : 서귀포시 호근동 김경행(62세) 2003년 1월 서귀포시

· 술 : 소주

· 메밀 미음 1그릇(영혼을 위한 것)을 차려 놓고

무당 2~3명이 빈소였던 방 앞마루에 앉아 ‘차사본풀이’를 염송하는데 이 때 소요되는 무구는 장구 한 개가 보통이다. 빈소였던 방에 간단히 設床하고 설상한 곳을 향해 ‘차사본풀이’를 다 염송하고 나면 逐邪儀禮로 콩을 뿌리는 것으로써 마친다. 그러나 귀양풀이를 하면서 무당은 망자를 대신하여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 친족 중에 신들렸다고 하여 그를 망자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렇게 그 날 저녁 4~5시간 정도의 간단한 기원은 본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행해졌으며 지금도 전통장례를 치르는 상가는 거의 귀양풀이를 행하여 망자를 저승길을 편안하게 인도하였다고 생각한다.

23) 再虞祭

장사를 지낸 뒤 첫 번째 유일[柔日]새벽에 두 번째 지내는 우제로 삭망제를 지내는 형식으로 제를 지내는데 망자가 집에서 받는 첫 번째 제사가 된다. 그러나 요즈음은 생략한다

24) 三虞祭

재우 후에 강일[剛日]을 만나면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산소를 찾아가서 가족들이 성묘를 한다. 이것으로 장례에 따른 의식이 끝나고 초하루·보름에 삭망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요즈음 장례는 장지에서 초우·재우·삼우제를 지내는 형식의 축을 읽고서 생략을 한다.

2. 喪·葬禮에서 고려 事項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저승이 극락일지라도 이승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죽음은 모두에게 두려움이며 공포의 대상으로 살아

있는 자들은 죽음을 외면하고 피하려 한다. 그래서 장례에 대한 많은 금기 사항들도 시신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생자의 세계와 사자를 분리하여 단절시키려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즉 濟州島 묘의 형태에서도 생자와 사자의 영역을 분리하는 산담이라는 경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1) 葬禮시 禁忌 사항

- ① 몸 비린 사람 ㄷ새기 새끼 낳는 거 보면 승 본다
 - 장례식에 갔다 왔거나 시신을 본 사람이 돼지가 새끼 낳는 것을 보면 흉을 보아 물어 죽이거나 깔아 누워 버린다.
- ② 침 맞은 사람 장 밭에 안 간다.
 - 침을 맞고서 장지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침을 맞은 환자가 死者의 병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③ 종명 직후 온돌 아궁이를 잘 막고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된다.
 - 만약 온돌 속에 족제비, 또는 고양이가 들어가면 관이 일어선다는 속설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체의 부패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냉방에서 지내는 걸 보면 귀신을 음기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 ④ 외출했다가 사망한 자의 시신은 그대로 집안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 밖에서 죽은 시신은 집에 모시지 않고 집밖에 모셨다가 장례를 지낸다는 속설 때문이다.
- ⑤ 하관 할 때 관 가까이 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 관 근처에 돌맹이가 있으면 안 좋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관이 썩으면서 관속으로 돌이 떨어져 귀신이 놀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 ⑥ 수의를 만들 때 바느질하면서 실매듭을 맺어서는 안 된다.
 - 망자의 수의를 만들면서 매듭을 맺지 않을 뿐 아니라 시신을 묶을 때도 매듭을 짓지 않는다
- ⑦ 마을에 마마가 유행할 땐 고복을 해서는 안되며 곡소리를 내어서도 안 된다.
 - 마을에 천연두가 유행할 때 혼을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저승길에 벗을 보고 간다고 해서 다른 초상이 난다고 한다.

- ⑧ 시신을 香湯으로 씻은 다음에 그 물을 三煞方으로 던지면 안 된다.
- 시신 씻은 물을 시신의 일부로 보아서 三煞方으로 던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⑨ 출구할 때 관을 문이나 문지방에 부딪치게 해서 안 된다.
- 망자가 놀란다는 이야기도 하고 깨어난다는 이야기도 있다.
- ⑩ 관 위에 덮는 이불은 좀 비뚤어지게 덮어야지 반듯하게 덮어서는 안 된다.
-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구분하는 의미라고도 한다
- ⑪ 콜레라로 병사한 자는 시신을 덮어서 매장해야지 그대로 매장해서는 안 된다.
- 호상이 아닌 의미도 있고 병균이 입이나 코로 전파되어진다고 생각해서 취해진 예방조치인 것 같다
- ⑫ 임산부는 시체를 보아서 안 된다.
- 임산부는 시체를 보면 놀라서 임산부가 탈이 날수도 있고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⑬ 장례를 마칠 때까지 상가에서 비질을 해서 안 된다.
- 애도를 하는 기간이라 생각해서 일상의 생활이 정지된다
- ⑭ 동네에 초상이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성복 전에 머리를 빗으면 안 된다.
- 부모가 돌아가면 여자들은 머리에 광목으로 천조각을 머리에 맨다. 이를 ‘머리 창’이라 한다.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오른쪽,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왼쪽에 하는데 복을 입는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도 조의를 표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다.
- ⑮ 수의를 지을 때 바느질 하다가 수의 속에 바늘이 들어가게 해서 안 된다.
- 수의를 짓는 옷감도 잘 썩는 천을 이용하듯이 관속에 바늘 같은 썩지 않은 물체가 들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⑯ 행상 할 때 고인의 친척 묘소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 인사하는 뜻으로 상여를 좀 낮추었다가 가는데 이를 ‘하매 혼다’로 일컫는다
- ⑰ 시신을 보고 나서 장독을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
- 장맛이 변한다. 지난날에는 장을 담글 때 정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금줄을 치는 경우도 있었다.
- ⑱ 장지에 다녀오고 나서 사흘 동안 메주를 쑤거나 장독에 장 담그는 일을 서둘러 안 된다.

- 몸을 비리고 장을 담그면 안 된다. 그 만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⑱ 동네 초상난디 머리 감지 말라.

- 동네 초상 난 곳의 망자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보고할 때 너만 왔느냐 물으면 아무개도 이제 머리감고 호상옷 입고 곧 옵니다. 고자질 하면 그 사람이 곧 죽는다.

⑳ 동네 잔치 집에 새 신랑이 가기 전에 상제가 먼저 가지 아니한다

-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새 신랑 앞에 부모의 복을 입은 사람이 다니는 것은 부정 탄다고 한다

㉑ 동네 초상난 디 바느질하면 나쁘다

- 바느질하는 하는 사람 스스로가 호상옷을 차려 입고 저승에 갈 차비를 하는 격이다. 초상집 망령이 저승에 가서 '아무가이도 호상옷 차려입고 곧 저승에 올 준비하고 있다'고 고자질하면 그 사람이 죽는다

2) 墓의 形態

濟州島 묘 형태의 특색은 가운데 원형인 봉분을 두고 돌담으로 네모나게 쌓은 이른바 <산담>이다. 원형인 외담을 쌓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임시로 마소가 파헤치지 않도록 쌓아두는 경우이고 네모나게 겹담으로 쌓아야 <산담>을 마쳤다고 한다.

① 봉분

제주의 봉분 형태는 대개 원형인데 원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방묘보다 발복이 빠르다는 속설 때문이라고 한다.

제주의 묘는 시신을 매장하고 원형으로 무덤을 만들고 난 후 용미라고 하는 꼬리 부분을 따로 만든다. 이는 경주의 왕릉과 다른 독특한 방식이다. 먼저 원형 무덤을 만들거나 가매장을 한다. 원형무덤만으로는 완전한 무덤이 되지 않는다. 원형 무덤을 만들고 난 망인의 가족들은 택일을 하여 용미를 빼는 절차를 행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봉분을 만들면서 용미 형태를 만든다. 이는 머리 방향에 꼬리 모양으로 흙을 덮어 마치 산맥의 흐름처럼 만든다. 이렇게 해야 완전한 무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미를 빼지 않으면 토롱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¹⁶⁾

② 산담

제주 묘의 형태는 돌담으로 네모나게 쌓아 만든 사각형 형태와 외담이라고 해서 임시로 타원형의 담을 쌓는다. 제주도는 마소를 방목해서 키웠던 때문인지 거의 어떤 형태의 담이든 쌓아서 마소로부터 봉분을 보호한다. 보통은 장례식 날 산담을 쌓으나 사정상 산담을 못하면 다른 날 택일하여 산담을 한다. 산담을 쌓을 때는 지역에 따라 神門, 시문, 수문이라고 해서 남성은 왼쪽, 여성 묘는 오른쪽에 50cm 정도 터놓아 신이 출입하는 출입문이 있다.

합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부부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며 벌써 묘가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활분을 금하기 때문에 합묘하려면 이장해서 다른 곳에 구산해야 합묘를 할 수 있다. 합묘할 때는 묘와 묘 사이에 관이 놓인 봉분 옆으로 구멍을 뚫는다. 일단 합묘하면 분묘할 수는 없다.

봉분이 만들어진 다음 산 담을 쌓는 것은 봉분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망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승과 저승의 영역을 구분하여 산담 안은 망자의 세계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제주도의 설화에도 전해져 내려온다.

어느 마을에 소를 먹이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 어느 묘가 있는 산담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꿈에 젊은이가 있는 묘에 웬 노인이 찾아와서 ‘성님 식게 먹으래 같이 갑주’ 하고 청하자 젊은이가 묵고 있는 묘 주인이 오늘은 손님이 집에 와서 갈 수 없다고 하여, 그 노인은 혼자 제사 먹으러 갔다. 돌아와서는 제사 먹으러 갔더니 큰 뱀이 상에 걸어져서 제사를 못 먹고 왔다면서 자식을 혼내주고 왔다는 이야기를 꿈속에서 들었다. 이튿날 젊은이가 마을에 내려오니 어제 밤 어느 제사 집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집에 가서 어디에 어떤 산이 있는지 물었더니 젊은이가 잠을 잤던 산이라고 하였다. 젊은이가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주인이 파제 후 콩나물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걸 보았다는 이야기였다.¹⁷⁾ 그 이후로 그 동네에서는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지금도 나이 든 노인들은 산에 갔다가 날이 저물어 산에서 잠을 잤던 이야기를 하는

16) 현승환,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탐라문화』 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2, p.277.

17) 제보자 : 구좌읍 상도리 정지종(80세) 2002년 8월 송당리

데 들어보면 대개 산담 안에서 잤다고 한다. 이것은 산담 안을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여 잡귀가 범접할 수 없어서 탈이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3. 祭儀的 性格

인생의 고비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의식을 분석해 봐도 쉽게 분리, 전이, 통합의 세 단계로의 분류가 적절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 켄넵은 이러한 세 하위 범주가 모든 민족이나 모든 의식에 동일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분리의례(rites of separation)는 장례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통합의례(rites of incorporation)는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이 의례(transition rites)는 예를 들면 임신기, 약혼식, 입사식(入社式 initiation)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는 입양(入養)이나,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재혼, 또는 두 번째 연령 집단에서 세 번째 연령 집단으로 통과할 때 이 역할은 최소로 축소될 것이다.¹⁸⁾

상·장례 의례에서 전이 기간은 먼저 물리적으로 표현된다. 곧 길든 짧은 간에 죽은 자가 기거하던 방이나 현관 또는 다른 어떤 곳에 屍身을 그대로 놓아두거나 아니면 관에 넣어둔 상태로 며칠을 지낸다.¹⁹⁾ 그 동안은 밤새 시신을 지키며 장례 절차에 따라 장례가 치러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와의 분리의례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는 탈상의례를 통해서 사회에 재통합되고 망자는 사자의 세계로 통합하게 된다.

상중에는 살아있는 자들과 상주, 또 상주와 망자는 특별한 집단을 이루며, 산 자의 세계와 사자의 세계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얼마나 빨리 이 집단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죽은 자와의 관계의 멀고 가까움에 달려 있다. 상례를 행해야 하는 정도는 친척관계에 의존하며 부계, 모계에 따른 나뉠대로의 방식에 의해 체계화되어 있다.

이러한 장례 의례 중 濟州島 장례에서 많이 행하여 졌던 토롱은 어디에 속할까? 선행 연구에 따르면 상례만이 아니라 제례까지를 포함하여 분리의례, 과도의례, 가입의례로 3

18) A. 반 켄넵 지음,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p.8.

19) A. 반 켄넵 지음, 상계서, p.200.

分하고 있으며 각각을 다시 분리기, 과도기, 가입기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²⁰⁾ 필자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면서 선행 연구 성과를 토대로 토롱의 교육적 의미까지 추적해 볼 것이다.

1) 분리의례

상례는 사자의례요, 제례는 조상숭배를 위한 추모의례로 구분된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숨을 거두면 생사가 구분되어 산자와 분리가 시작되며 상례가 시작된다. 오늘날 생사의 구분은 심장의 박동 유무에 따라 심장 박동이 있으면 설사 의식이 없더라도 사망으로 진단하지 않는다 심장 박동이 멈추면 의사는 사자로 인정한다. 이 과정은 분리기, 과도기(전이기), 가입기라는 3단계로 구분한다.²¹⁾

① 분리기

분리기는 임종을 말한다. 환자가 운명하게 될 때 자손들은 환자 곁에 모여서 임종을 지켜보며 유언을 듣는다. 이때까지는 자손들이 환자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환자의 뜻을 전달받으려고 애를 쓰며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안심시키며 위로하기도 한다. 이때가 생사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시작의 단계로 자손들은 임종을 못 보면 불효라는 생각들을 가진다. 현재까지도 그런 관습이 이어지고 있어 주변 친척들은 환자가 더 못살 것 같다고 하면 살아 있을 때 한번 보자고 하여 병 문안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환자에게 이승을 떠나 보내기 위한 이별의식이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과도기

과도기는 초혼에서 염습까지이다.

환자가 호흡을 멈추면 환자의 저고리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 이름을 부르고 복, 복, 복, 하고 초혼을 불러 그 옷을 환자의 몸 위에 잠시 둔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지 말고 돌아오라는 의미이다. 이렇고도 숨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을 재확인하고 혼백 상을 차린다

운명하면 향탕수로 사자의 온몸을 닦아내는 염을 한다. 이 역시 생자와 사자를 구분

20) 현승환, “제주도상·제례의 절차와 신앙적 의미”, 『탐라문화』 1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21) 현승환, 위 논문, 1997.

짓는 의식으로 생자인 경우 경건한 제례를 치르는 제관인 경우 향 물로 손을 씻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향 물로 목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몸을 정갈하게 하여 제례를 치르려는 의도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사자에 대한 향물 목욕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들어가는 준비 단계의 하나로 여겨진다. 몸을 씻고 난 다음 생전의 옷을 벗기고 수의를 갈아 입히는데 이를 중요시 여겨 나이가 들면 스스로 수의를 마련하고 그 수의를 입고 춤을 추기도 한다. 그것은 자신의 이승에서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함이라 하여 쌀을 입안에 넣어 저승으로 갈 때 양식으로 하게 하고, 저승 문을 들어설 때 저승 문을 지키는 개에게 내어주어 개를 쫓는데 사용하라고 자그마한 떡을 양손에 3개씩 넣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에 따라 다른지 제주지역은 떡을 양손에 넣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조발낭이라 하여 망인의 머리털 몇 개 발톱을 깎아 놓고 시신을 묶는다.

③ 가입기

가입기는 입관이다. 입관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면 관 밑에 지금을 깔고 시신을 넣고 天衾을 덮은 다음 관속에 넣으려고 준비한 옷이나 생전에 입던 옷 중에서 화확사가 아닌 옷을 골라 관에 넣고 땀수건이나 지팡이를 넣기도 한다. 이는 저승길이 험하고 멀므로 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를 짚고 땀이 나면 닦으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보공(補空)으로 채운 후 뚜껑을 덮으면 된다. 시신을 입관시키므로 생자는 사자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감감한 관속에 시신을 모심으로써 생자와 사자의 영역으로 분리가 된다.

2) 과도의례

입관 후 지내는 성복제는 망자를 위한 첫 제의이다. 이 과도의례가 행해지는 동안은 사자로 취급하지 않고 생자와 같이 고인을 대접한다. 그러면서도 고인은 생자가 아니므로 고인이 머물고 있는 집은 부정한 집이 된다. 집안에 혼인식이 있어도 혼인이 연기되고, 마을제가 있을 때는 상례가 뒤로 연기되기도 하며 제관들이 몸을 비리지 않도록 피하여 마을제를 지내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집안에 제사가 있으면 몸을 피하기도 한다. 이

때 망자는 이 세상을 하직하였으나 저승의 영역도 아니고 이승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셈이다. 과도의례 역시 3단계로 나누고 있다.

① 분리기

분리기는 성복에서 일포까지를 말한다.

고인의 가족들은 초혼을 부르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종명[終命]한 것으로 보고 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친족들은 남자는 두건을 쓰고 여자는 복수건을 써서 성복제를 치른다. 이어서 혼백 상을 모시고 조문객을 맞이한다. 조문객들은 먼저 시신 앞에 놓여 있는 제상을 향하여 재배를 하고 상주를 향해 단배를 하고 조의를 표한다. 이 과정은 생자인 조문객이 사자와 교류를 행하는 것이다. 喪主를 위해 조문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을 위해 조문을 하는 것이다. 즉 고인과의 이별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다. 고인은 생의 영역에서 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문객과 고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고인을 대신하여 상주에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상주는 생자이지만 고인과 교류가 되는 존재이다. 조문객에게 고인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그는 생자이지만 상복을 입음으로써 생자도 아니고 亡者도 아닌 중간적 존재인 것이다. 상주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조문객이 상주에게 배례하는 것은 자신과는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배례가 끝나면 조문객은 음식 대접을 받는다. 이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고인의 가족 여인들로 상복을 입고 있다. 이들도 역시 생자도 아니고 亡者도 아닌 중간적 존재이다. 인사를 하러 온 조문객에게 고인을 대신하여 고인의 가족이 대접하는 것이다. 고인은 조문객과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고인이 대접하는 것과 같으므로 神人共食의 의미가 있다. 말로써 고인과의 교류가 아닌,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고인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과 인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들로 모든 의례 후 음복은 고인과의 교류를 의미한다. 제례에 썼던 술을 음복 술이라 하여 서로 나누어 마시는 행위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 고인을 위한 제물 진설은 생자에게 올리듯이 하여 메는 왼쪽 갯은 오른쪽에 넣는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체와 영혼이 합일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면 인간은 죽게 된다. 그 영혼은 차사가 데리고 저승으로 가게 된다.

사자의 영혼이 차사와 더불어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는 과정 역시 멀고 험난한 것이어서 입관 시 손수건과 지팡이를 넣어주는 것은 험난한 길을 가는 망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의미이며 이 과정이 성복제부터 시작이 된다.

성복이 끝난 다음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장례일자를 정하고 산터를 보아서 순조롭게 장례절차가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라든지, 택일이 안 난다든지, 산 터를 못 구한다든지, 주상이 출타중이라든지, 집안 혼사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는 토롱을 하게 된다. 토롱 하기로 결정되면 성복제가 끝나는 즉시 바로 동네 주변 야산이나 밭에 가서 초분을 하거나 가매장을 한다. 즉 이중장제에서 第一次 葬에 속하는 토롱을 하면 영장에 의하여 몸을 비린다는 것이 해소되고 상가에서는 장례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가 해결되면 장례일자를 보고 나서 전날 일포제를 지내는 순서로 장례절차가 이루어진다.

일포제는 고인이 생자와 마지막 이별의례이다. 분리의례가 생과 사의 분리를 상징한다면 일포제는 고인이 거처하는 정들었던 가족들 친족·친구들과의 분리의례의 완성이다.

② 과도기

생사의 분리에서 생자와의 분리가 마무리되어 고인은 이승에서 거처하던 곳을 떠나 상여를 타고 장지로 향한다. 상여를 타고 가는 고인은 가족들과 친지들과의 헤어짐을 싫어한다.

상두꾼들을 이러한 고인의 뜻을 상징적으로 연행하여 상여를 메고 가면서 이웃이나 친지 집 앞에서 머물러서 노제(路祭)를 받거나 또는 가기 싫다는 시늉을 하면서 버틴다. 이때마다 설베를 잡은 아낙들은 잡아당겨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장지까지 이루어진다. 장지에서 하관이 이루어지면 가족과 친지와와의 분리가 완성된다

③ 가입기

하관이 되면 이 때부터는 저승에 가입하는 시기이다.

하관제, 삼우제에서 대상까지 바로 저승 가입을 준비하는 의례로 저승으로 가는 과정

의 의례이다.

소상, 대상에는 조문객들이 찾아와 초상 때와 같이 神人共食을 하며 고인을 위해 세 번의 신인공식이 이루어진다.

대상이 끝나면 고인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 옷 등을 태운다, 이는 저승에 들어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승에 남김 없이 모두 갖고 가라는 의미이다. 이때 태울 것이 많으면 땅에 파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고인이 저승길을 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속설 때문이다.

대상이 끝나면 망자의 영혼은 저승으로 가고, 상주는 탈상을 통해서 다시 이승의 세계로 복귀하는 가입의례로 받아들여진다. 망자의 영혼이 편안히 저승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무속의례인 시왕맞이에서 심방은 저승행의 여부를 생자에게 확인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

3) 가입 의례

분리의례를 거쳐 과도의례는 육체를 떠난 영혼이 저승으로 여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동안은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생자와 같이 제물 진설이 행해진다.

① 분리기

대상이 끝나고 100일이 되어 행해지는 담제부터는 제물 진설이 달라진다. 기일제사와 같이 메는 오른쪽 갯은 왼쪽에 놓인다. 이는 영혼이 저승에 안착했음을 의미한다

담제는 生者가 아닌 사자로 인정하며 생사분리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영역에서 조상의 영역으로 가입하는 분리기에 해당된다. 이로써 사자의 영혼은 매년 명절과 기일제사에 후손을 찾아오며 자손은 찾아온 조상을 극진히 대접하고 돌려보낸다. 우리의 조상은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자손의 정성에 따라 복을 주거나 재앙을 준다는 관념을 갖고 있어 이런 신앙이 풍수지리설과 어울려 명당을 찾아 모시는 근거가 된다.

② 과도기

기일 제사는 4대까지 행해지며 조상으로 존경을 받는데 4대 봉사가 끝나면 축을 고히고 지제를 한다. 이때 지제를 하기 위해 축을 메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는 속설이 있어

대개 나이가 든 사람의 이름으로 축을 맨다. 이때는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해당자의 이름으로 축을 고한다. 4대인 고조부모까지는 자손과 교통하며 기일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동안은 자손과 교류할 수 있음을 의미이며 지제하기 전까지를 과도기라 할 수 있다.

③ 가입기

4월 淸明이 되면 조상의 묘소를 찾아 묘를 정비하고 묘제를 지내기도 한다. 묘제는 기일을 택하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청명 근방에 제를 지내는데 이때 가장 윗대 조상의 묘에 가서 묘제를 치른다. 이때 조상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제사를 치르므로 몰개성적인 조상이라 할 만하다. 이때는 조상의 개념이 아닌 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신의 세계로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다.

<사례편람>에 숲이 끊어지면 이내 곡을 한다고 하며 이때부터 죽음의 단계로 인식하고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부정은 청정과 대립되는 개념이며 청정은 성스러운 세계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조상신이 되어 성의 세계에 들어가지만 그 이전에는 부정한 세계에 머무는 것이라 믿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러한 부자유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게 하는 사건이지만 한편 인간을 신의 세계로 입문시키는 새로운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에는 부정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을 일차적으로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²²⁾

죽은 자가 사자의 세계에 입문함으로써 자손의 보호자나 원령이 되어 관계를 계속하는 존재로 남기도 한다. 어떤 점에서 성질을 바꾼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서 사회구성원과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죽음은 생명의 단절이라는 불행한 사건이고 한편 신이 될 일차적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다. 즉 사후세계를 전제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살았을 때부터 당사자나 자식들에 의하여 호상옷이 준비된다. 자립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개관 등을 마련해 두거나 사 두기도 한다. 심지어는 밧자리를 미리 골라서 헛 봉분[假封墳]을 만들고 산담까지 하여서 사후를 준비한다.

실제 조사 중 구좌읍 용눈이 오름 서쪽에 가족묘지로 옮겨간 천리 터를 사서 헛봉분

22) 최길성, 전계서, 예전사, 1986, p.237.

[假封墳]을 만들어 벌초까지 하면서 사후를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²³⁾ 이렇게 준비하여 상례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러야 편안하게 저승의 세계로 입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장례가 끝나고 난 그 날 저녁에 사람이 죽은 장소에서 부정을 없애는 의례를 행한다. 이것은 죽어나간 자리를 가시는 일이지만 부정은 집 전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집 가심’이라고 한다. 때로는 환자가 누워 있던 자리를 가신다는 의미에서 ‘자리걸이’라 한다. 이것은 장례가 끝난 그 날밤에 행하는 것이지만 호남지방에서는 시체를 관에 넣고 그 관머리에서 무당이 씻기는 의식을 한다. 그래서 이를 ‘곽머리 씻김’이라 부른다.²⁴⁾ 반면 濟州島의 장례에서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당일날 밤 이에 대응하는 의례로 귀양풀이를 한다.

한국의 통과의례에는 생자 의례보다 사자의례에 비중이 더 크게 주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친족 조직이 자기중심(ego-centered)적이기보다 선조중심(ancestor-centered)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절차와 사고를 분석해 보면 장례절차와 그 기본적 이념은 생자에 대한 그것과 흡사하다. 즉 면대조상(面對祖上)에 대한 연장선상에 우리의 사자의례는 행해지니, 신(神, 死者)과 인(人, 生者)은 동원(同原)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다.

23) 제보자 : 구좌읍 상도리 부두방(58세) 2003년 8월

24) 최길성, 상계서, 도서출판 예전사, p.237.

Ⅲ. 喪·葬禮에서 토롱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저승길로 들어선다, 저승은 현세보다 좋을 수도 못할 수도 있다. 극락과 지옥이라는 극단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저승을 찾아가는 데는 망자의 생전 행실과 생자의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자의 정성이 부족하면 망자의 혼은 구천을 떠돌게 되고 인간에게 재앙의 원인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망자들이 넋을 달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일은 살아남은 자의 의무로 생각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장애가 있으면 草墳이나 토롱 등의 방법으로 이중장제로 장례를 지낸다.

우리나라에서 이중장제의 명칭은 草墳, 外賓, 生賓, 최빈, 초빈, 외분, 外峰, 고름장, 초장, 건품 등 여러 가지 이칭이 많다. 그 중에서도 초분을 많이 치렀으며, 그 명칭은 1차 장 때 짚으로 이엉을 해서 덮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濟州島에서는 생빈늘, 토롱 등의 명칭을 썼다.

1. 토롱의 事例와 類型

우리나라의 전통장례에는 장지를 선택하지 못하면 권핍[權窆]이라고 해서 임시 가매장을 하였다가 장지를 골라서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 이런 복장제 혹은 이중장제라고 불리는 草墳, 龜土陵 등은 우리나라 전통장례 方法이었다. 지금도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행하여진 기록들로 보아 제주지방의 토롱도 여기에서 전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시습의 한문소설 金鰲新話 <만복사저포기>에 ‘양생 상대 여인은 왜구의 침략으로 목숨을 잃은 원혼이다. 가매장되어 있었던 3년 동안 꽃다운 청춘의 외로움에 원망이 쌓여 원귀의 상태에 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되어 ...’라는 이야기처럼 가매장 상태는 인간의 통과의례 중 마지막 의례인 장례가 중단되어 저승도 이승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원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신을 정상적으로 매장하지 못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때 장례의 중간과정인 가매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도에는 『草墳』과 『龜土陵』이라는 二重葬制 방식이 있는데 땅을 평평하게 고른 다음 관을 놓고 벗 집단을 초가지붕처럼 덮고 거센 바닷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새끼줄로 십자 형태로 엮은 뒤 끝 부분에 돌을 메달아 놓았다. 가매장이지만 봉분 형태를 따르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초분은 3년 상이 끝나면 길지를 골라서 장사를 지낸다고 한다.

또한 『龜土陵』은 이중장제의 방식은 같지만 초분을 만들지 않고 봉분처럼 흙을 덮어 만든 무덤을 일컫는다. 『龜土陵』이라는 말은 거북이 등과 같은 형상을 한 봉분 형태에서 따온 말로 지역에 따라선 ‘구토령’, ‘귀토령’, ‘귀토릉’ 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구토릉이라는 말이 일반화 추세라고 한다.²⁵⁾

제주도 장례에서도 택일 날짜가 알맞게 드러나지 않거나 얼른 구산할 수 없을 때, 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분간 가매장 해 둔다. 제주에서는 이를 토롱이라고 하는데 『土陵』또는 『龜土陵』에서 받아들인 용어라는 생각이 든다.

제주의 상·장례에서 행해지는 토롱 형식은 같으나 절차나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토롱의 변화가 지역별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구분하여 차이점을 찾아보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토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제주지역에서만 토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진 가매장이 변천과 濟州島 상·장례문화에서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례별로 분류하여 오늘날이 장례방법과 비교하여 보았다.

1) 事例 1

제주도 공통적인 사례로 사람이 사망하면 상주가 많은 집안에서는 상주들의 생년월일 넣고 택일을 하다 보면 여러 상주 중 택일이 맞지 않아, 날자가 안 나면 토롱을 했다가 그 장애요소가 없어지면 매장을 한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장사를 지낼 경우 택일이 맞지 않은 상주가 해를 입는다는 속신 때문에 토롱을 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만 상주만을 대상으로 택일을 하기도 한다.

25) 김용덕, 전계서, 도서출판 밀알, 1994, pp.279~282.

안덕면 덕수리 송씨 택에는 부친이 사망하여 택일을 하니 둘째 생년이 맞지 않아 용미·제절 없이 봉분을 만들었다가 그 해 겨울 신구간에 용미를 만들고 봉분을 완성시킨 이야기가 있다. 또 신구간에는 날을 보지 않고 산담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어 신구간은 산 자 만이 아니라 사자에게도 적용되는 관습임을 알 수 있다. 택일이 맞지 않은 상주가 있어 택일을 고르다 보면 장례일수가 길어지기도 한다. 이때도 토롱을 하여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 흔히 장사 일에 일기가 불순하다든지, 택일이 잘못되면 주변에서는 사람이 오죽 복이 없으면 땅에 들어갈 날짜 하나를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지역 : 성산읍, 서귀포시, 대정읍, 애월읍>²⁶⁾

2) 事例 2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묘지를 조성하면서 쌍묘를 할 계획이었다. 할머니가 사망하는 그 해에 쌍묘를 하려고 보니 그 해 할아버지 묘 옆으로 갈 방위가 맞지 않았다. 할머니를 다른 곳에 토롱 했다가 막은 방위가 풀리자 할아버지 묘 옆에 할머니 모시고 장례를 치러 쌍묘를 만들었다. 묘지를 이장할 경우도 방위가 맞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막은 방이 해소되면 이장을 했다고 한다 이 경우 택일을 하고 이사를 하는 일반인들도 집을 장만하고 이사하려고 보니 방위가 맞지 않아 다른 곳 한 곳을 경유하여 이사하는 풍습하고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지역 : 성산읍, 구좌읍>²⁷⁾

3) 事例 3

정월 명절 3일 전에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려고 택일을 하니 3일장이 나오지 않자 토롱을 하였다가 명절을 지내고 나서 택일을 하여 장례를 치렀는데 이 때 성복만 하고 일포를 뒤로 미루었다가 장례 택일이 난 전날 일포를 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이 관행은 전도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는 풍습이다. 지금도 전통장례를 치르는 지역에서는 마을 포제라든지 집안 결혼식 등을 당하면 토롱을 하고 집안 대소사를 치른 다음, 장례의 장

26) 제보자 : 구좌읍 상도리 강남훈 (54세) 2003년 1월 상도리
성산읍 오조리 오홍부 (62세) 2003년 4월 오조리

27) 제보자 : 성산읍 오조리 오홍부(62세) 2003년 4월 오조리

에 요소가 제거되면 장례를 치르는 일은 濟州島 전지역 거의 공통사항이었다.

<지역: 서귀포시, 구좌읍, 한림읍>²⁸⁾

4) 事例 4

가문에 따라 관행처럼 정하여 장례를 치르는 집안도 있다.

애월읍 하귀리 송씨 집안에는 5일장 이내로 택일을 못 잡으면 토롱을 하고 택일을 잡으면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특이한 사례들은 그 집안에 문장을 잘하거나 대소사에 밝은 어른이 있는 경우 집안 관습에 의해 토롱을 한다는 것이다.

<지역: 애월읍, 성산읍 >²⁹⁾

5) 事例 5

구좌읍 상도리 홍씨 집안에서는 40여년 전 아버지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 그런데 그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정시와 산터(뫓자리)를 잡으려고 하니 눈 때문에 구산을 다닐 수 없어 산터를 잡지 못하자 성복을 하고 난 다음 동네 주변 밭에다가 토롱을 했다가 9일 만에야 눈이 녹고 날씨가 좋아지자 뫓자리를 구하고 나서 日晡祭를 지내고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지역: 구좌읍, 성산읍>³⁰⁾

6) 事例 6

옛날에는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고 산터는 조금이라도 나은 곳을 잡으려는 상주들이 욕심도 있어 구산을 하다 보면 장례를 빨리 치르지 못하여 5일장, 7일장, 9일장, 15일장을 치렀다고 한다. 요즘 거의 다 3일장이지만 옛날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산터를 잡지 못하면 지관들은 토롱을 권했다. 상주들은 조금이라도 길지에 모시는게 효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롱을 했다가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많았다. 구좌읍 문씨 집안에는 심지어 3년 동안 토롱 했다가 구산을 하고 나서 장례를 치른 이야기도 있었다.

28) 제보자: 대정읍 인성리 정문후(54세) 2003년 8월 인성리

29) 제보자: 구좌읍 세화리 홍계선(43세) 2003년 4월 세화리

30) 제보자: 구좌읍 상도리 홍성종(68세) 2003년 1월 상도리

그러다 보니 지관들이 농간도 더러 생겼다. 더 좋은 산터를 구한다면 시일을 오래 끌면서 그 동안 잘 대접받으며 지내다 보니 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지역 : 구좌읍, 성산읍, 안덕면>³¹⁾

7) 事例 7

장례가 났는데 좋은 음택을 구하지 못하여 토롱 형태로 임시 매장을 해두었다가 음택을 구하면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땅에 지내는 토신제라든지 하관 제 초우, 재우, 삼우제만 안 지내고 상·장례 절차에 따라 삼년상을 치른다.

제주시 일도2동 허씨 집안에는 위암으로 사망한 부친을 원하는 음택을 구하지 못해 봉분을 만들어 놓기는 해도 현재 토롱 형태로 두어서 원하는 산터를 잡으면 장례를 치른다고 한다.

<지역 : 제주시, 구좌읍>³²⁾

8) 事例 8

제주지역 어디에도 콜레라 때문에 사망한 이야기가 있다. 이때 병원균과의 격리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사망하면 바로 어떤 격식도 안 차리고 매장하기 쉬운 모래사장 같은 곳에 토롱을 했다가 호열자가 수그러진 후에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이때는 장례절차도 없이 산 자와 죽은 자의 격리 차원의 토롱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혼도 부르지도 않았고 일부지역에서는 매장을 하면서 옆에서 매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지금도 자살하여 죽거나 하면 옆에서 매장을 시키기도 한다.

성산읍 시흥리에서는 병술년 콜레라로 죽은 사람이 28명이나 되어 시신을 망머루 동산이라는 모래밭에 5~6개월 간 매장하였다가 장례를 치렀다. 이 때는 병 때문에 장례절차도 없이 겨우 토롱만 했다가 5개월 후부터 준비되는 대로 정식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지역 : 성산읍, 안덕면>³³⁾

31) 제보자 : 구좌읍 세화리 문상주(54세) 2003년 1월 시흥리

32) 제보자 : 제주시 일도동 허철훈(48세) 2003년 4월 세화리

33) 제보자 : 성산읍 시흥리 고건봉(53세) 2003년 1월 시흥리

9) 事例 9

만 상주가 섬이나 육지부에 출타중일 때 사망한 사례이다. 날씨가 나쁘거나 사정이 생겨 만 상주나 꼭 보아야 할 사람이 참석 못할 것 같으면 토롱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 택일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이다. 흔히 추자도 같은 도서지방에 근무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는데 기상 악화로 참석해야 할 상주가 나오지 못하여 토롱을 한 이야기도 있다. 이외에도 남해안 섬 지방 같은 곳에서는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상을 당하면 초분으로 가매장을 했다가 상주가 오면 장사를 지내는 풍습도 있다. 그러나 택일을 하면서 주상이 참석이 어려우면 만 상주가 아닌 다른 상주로 택일을 해서 매장하기도 했다.

<지역 : 성산읍, 제주시>³⁴⁾

10) 事例 10

오조리 오씨 집안에는 문장이 아주 밝은 어른이 병이 나서 돌아갈 때가 되자 올해 죽으면 내가 보아둔 산 터에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토롱 했다가 아무 날 아무 시에 묻으라는 유언과 장례 택일까지 보아두고서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 죽기 전 자식들에게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유언을 남겨서 자손들은 그에 따라 토롱을 했다가 1년 뒤 보아둔 산터에 가서 토신제를 지내고 절차에 따라 장사를 치렀다고 했다.

혼사를 잡았는데 장례가 생기면 토롱하는 사례도 있고 마을 포제일이 다가오는데 상이 생길 것 같으면 제관들이 산으로 피하여 있다가 마을제를 지내기도 한다. 이것은 일단 토롱을 하면 몸을 비리는 원인이 되는 시신이 안보이므로 장애요소가 해소되었다는 생각에서이다.

<지역 : 성산읍, 대정읍>³⁵⁾

11) 事例 11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김씨 집안에 전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산터

34) 제보자 : 성산읍 시흥리 현봉득(68세) 2003년 1월 시흥리

35) 제보자 : 성산읍 수산리 오인수(58세) 2003년 2월 수산리

를 보고 매장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저런 곳에 산을 쓰다니’ 하며 지나갔다. 마침 옆에 있던 상주가 그 말을 듣고 쫓아가 사유를 물었더니 ‘그곳에 장사 지내면 내일 아침이면 아버지가 성산 오름 밑에 가있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상주들이 반신반의 하자 개광한 곳에 가서 바닥에 돌을 던지자 구멍이 생기면서 한참 뒤에 물소리가 났다고 한다. 그제서야 상주들이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걸 알고는 오시 하관인테 이제 시간은 없고 나그네를 붙들고 애걸복걸하며 산터를 보아 달라고 하자 한 곳을 가리키며 저 곳에 산을 쓰라고 했다. 산터는 좋아 자손은 잘되는데 ‘탈이 있겠다.’고 하면서 당대에는 병어리들이 되리라는 이야기를 하자 거기 모인 아들이나 고모들이 우리는 거의 살았으니 자손 잘 되면 그만 이라고 해서 그곳에 산을 썼다. 지관이 말대로 3년 상을 치른 후 모두 병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이는 바로 뿔자리를 잡을 수 있어서 장례를 예정대로 치렀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임시 토롱을 하였다가 뿔자리를 다시 잡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 이 이야기처럼 명당에 매장하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 : 성산읍 >³⁶⁾

12) 事例 12

무역선을 타던 부친이 선상에서 사망하자 장거리 운상을 해야되는데 시신이 부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공동묘지에 토롱했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다음 뼈만 추려서 고향으로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이런 경우 영혼이 뼈에 깃들여 있으므로 뼈를 이장해 오는 것인데 흔히 뼈만 추려서 묻는 복장제의 일차 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 : 성산읍, 제주시>³⁷⁾

13) 事例 13

마을에 장례가 나면 뿔자리라든지 택일에 관계없이 마을 관례에 따라서 성복을 하고 나서는 바로 공동묘지에 있는 상여막이나 인근 야산 같은 장소에 관을 옮겨서 토롱하고

36) 제보자 : 성산읍 오조리 오홍부(62세) 2003년 3월 오조리

37) 제보자 : 성산읍 시흥리 고건봉(53세) 2003년 2월 시흥리

집에서는 장례를 준비하여 일포제를 지내고 나서 장례식을 치른다. 이 경우 전염병일 때는 모든 지역이 토롱을 하였다. 이때는 병자와 격리차원에서 토롱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지역 : 서귀포시, 대정읍, 애월읍>³⁸⁾

14) 事例 14

대정읍 구억리에서는 초상이 나면 관행에 따라서 성복을 하고서 마을에서 정해진 장소에 토롱했다가 장례를 치른다. 이때 토롱 장소로 가는 길목이나 장소 옆에 잔치집이 있다든지 집안에 정성들일 일이 있으면 다른 길을 이용하거나 다른 장소에 토롱하였다가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단 토롱이라는 절차에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몸을 비린다’ 혹은 ‘몸을 구친다’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아 정성을 들이거나 잔치 같은 것을 치러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

<지역 : 대정읍, 서귀포시>³⁹⁾

15) 事例 15

초상이 나면 상례에 따라 택일을 하고 안장하여야 하는데 절기가 6월 절이다. 제주도 장례 풍속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 장례가 6월에 당할 경우 성분을 하되 용미·제절을 하지 않았다가 7월절이 들면 용미·제절을 만들어 봉분을 완성시키는 장례를 지낸다. 제주의 모든 곳에서 6월절을 피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런 풍습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현재는 용미에 잔디 한 장을 뒤집어 놓고 제절은 완성을 시키지 않았다가 장례의 장애가 해소되면 택일을 하고 용미·제절을 완성시켜 봉분을 완성시킨다고 한다.

6월 절에는 산 사람도 앉은 방석을 옮겨 앉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이사도 피하고 장례식도 지내지 않아 절차에 따른 상례가 중지된다. 이는 농번기로 가장 바쁜 시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제주도에만 있는 풍습이다.

<지역 : 구좌읍, 성산읍 안덕면>⁴⁰⁾

38) 제보자 : 서귀포시 효돈동 강원길(57세) 2003년 1월 효돈동

39) 제보자 : 대정읍 구억리 김효관(50세) 2003년 8월 구억리

40) 제보자 : 구좌읍 하도리 부경현(54세) 2003년 8월 하도리

16) 事例 16

큰 상주가 날이 걸어⁴¹⁾ 장기간 장례를 치를 수 없어 덕수리 새난 길에 용미를 만들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가 1년 2개월 후 큰 상제가 날이 걸지 않게 되자 택일하여 용미·제절을 빼고 정식으로 봉분을 만들어 장례를 마무리지었다고 한다.

<지역: 안덕면, 구좌읍>⁴²⁾

17) 事例 17

젊은 나이에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하자 밖에서 죽어서는 집으로 들어 갈 수 없는 풍습에 따라 화순리 용터에 토롱하였다가 7일만에 장례를 치렀다. 이때도 토롱하고 나서 는 발일도 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다가 택일에서 정한 날에 장사를 지냈다.

<지역 : 안덕면, 성산읍>⁴³⁾

18) 事例 18

망인은 간 질환으로 투병 중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병원에서 사망도 집밖에서 사망으로 보아 집에 들어 올 수가 없다. 임시로 감산리 마을 공동묘지 근처에 토롱하고 나서 좋은 음택을 구하러 다녔으나 마땅한 곳을 찾을 수가 없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제주시 봉개동에 묘 자리를 구하여 장례를 치렀다.

<지역 : 안덕면, 구좌읍>⁴⁴⁾

19) 事例 19

망인은 덕수리에 살았는데 노환으로 사망하자 부근 지관에게 택일을 한 결과 둘째 상주 생년이 맞지 않아 할 수 없이 용미를 만들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 택일을 할 때는 충[衝]을 보는데 그해 닭띠와 토끼띠가 충이면 그해 택일을 못해 음택에 들지 못한다하여 토롱 형식을 빌어 매장을 했다가 겨울 친구간에 용미를 만들고 성분을 하고 장례를 마

41) 안덕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로 상주 생년과 당해 년도 사이에 택일이 맞지 않음.

42) 제보자 : 안덕면 덕수리 송만부(72세) 2003년 8월 덕수리

43) 제보자 : 안덕면 감산리 지현순(70세) 2003년 8월 감산리

44) 제보자 : 안덕면 화순리 지향배(54세) 2003년 8월 화순리

무리지었다고 한다.

<지역: 안덕면, 구좌읍>⁴⁵⁾

20) 事例 20

망인은 5남매를 두었는데 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자식들이 생년을 맞추어 장례일을 잡다보니 5일장으로 택일이 나왔다. 망인 집 뒷밭에 토롱하였다가 서귀포시 색달동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부지역에는 택일이 나온 경우는 거의 토롱을 하지 않는데 서귀포지역 및 제주시 서부지역은 장례가 나면 거의 토롱하고 있었다.

<지역 : 서귀포시, 구좌읍>⁴⁶⁾

지금까지 조사된 토롱 사례를 사연, 원인, 방법, 지역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토롱의 사례별 원인 분석>

사례 별	토롱 사연	토롱 원인	매장 방법	지역
사례 1	· 장례 택일이 안남	· 상주 생년월일	용미·제절 생략	구좌, 성산, 서귀, 대정
사례 2	· 쌍묘 계획	· 방위가 안 맞음	토롱	구좌, 성산
사례 3	· 정월 명절 겹침	· 몸을 비림	토롱	구좌, 서귀, 한림
사례 4	· 장례택일이 길어짐	· 가문 관행	토롱	성산, 애월
사례 5	· 폭설로 눈이 쌓임	· 구산을 못함	토롱	구좌, 성산
사례 6	· 명당 터 못 구함	· 명당 선호	토롱	구좌, 성산, 안덕
사례 7	· 음택이 없음	· 산 자리 없음	토롱	구좌, 제주
사례 8	· 상여꾼이 없음	· 호열자 창궐	집단 매장	성산, 안덕
사례 9	· 주상이 없음	· 맘 상주 출타	토롱	성산, 제주
사례 10	· 유 언	· 산터에 맞는 택일	토롱	성산, 대정
사례 11	· 산 터에 문제	· 산터 다시 잡기	토롱	성산

45) 제보자 : 안덕면 덕수리 지현순(70세) 2003년 8월 덕수리

46) 제보자 : 서귀포시 색달동 김규호(72세) 2003년 8월 색달동

사례 별	토롱 사연	토롱 원인	매장 방법	지역
사례 12	· 운상이 어려움	· 육지 출타 중 사망	토롱	성산, 제주
사례 13	· 정해진 곳 토롱	· 마을관행	토롱	대정, 서귀
사례 14	· 임시장소 토롱	”	토롱	”
사례 15	· 절기가 안 맞음	· 6월절	토롱	구좌, 성산, 안덕
사례 16	· 택일이 안남	· 만 상주 그해 운	토롱	구좌, 안덕
사례 17	· 택일이 길어 짐	· 출타 중 사망	토롱	성산, 안덕
사례 18	· 택일이 안남	· 병원 사망	토롱	구좌, 안덕
사례 19	· 택일이 안남	· 둘째 상주 생년	토롱	구좌, 안덕
사례 20	· 명당 터 구함	· 출타 중 사망	초분, 토롱	구좌, 서귀

토롱의 사례별 원인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장례 택일의 문제 : 상주 수, 막은 절기, 상주 운, 등
- ② 천재지변 : 폭설, 홍수,
- ③ 음택 미정 : 명당, 묘자리 문제
- ④ 운상이 안됨 : 전염병, 난리
- ⑤ 주상 때문 : 만상주 출타
- ⑥ 집안 사정 : 혼사, 상주 출타
- ⑦ 관습 : 마을관습, 포제, 가문가례,

토롱은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크게 산 자를 위한 토롱이나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한 토롱이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③번은 망자를 위한 토롱이나 이면에는 산자를 위한 절차가 숨어있다. 택일도 잘못되면 후손에게 피해가 생기고, 묘자리도 결국은 후손이 화를 입거나 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 반면 ④, ⑤, ⑥번은 산 자 때문에 토롱을 한 사례이다. ②번은 천재지변에 의해서이고 ⑦번은 망자가 속한 사회 집단의 관습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토롱의 원인이 명당이나 묘자리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가매장 성격이 토롱이 濟州島에서는 명당을 찾으려는 방법으

로 치러짐을 알 수 있다. 명당에 모셔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롱 할 때도 토롱 시점을 언제 행하느냐에 따라 장례 치르기 전이나, 아니면 장례를 진행하면서 토롱을 하느냐, 혹은 장례를 치르던 중 장례를 중단하는 토롱이냐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모두 이중장제에서 第一次 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토롱의 치러진 시기도 사례를 통하여 분석해 볼 때는 명당을 찾으려는 후손들이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 상·장례 절차에서 치러졌던 토롱은 그 원인이 다른 원인과 병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濟州島에서는 후손들이 명당을 구하기 위한 장례 절차의 한 방법으로 치렀음을 알 수 있다.

21) 특수한 병사자의 토롱

전염병으로 병사한 사람의 장례는 특수하다.

전염병으로 병사한 자는 염습과 조관을 얹은 채 신장 길이로 대나무를 받쳐럼 엮어서 시신을 두루 싸고 머리와 발 쪽에는 솔잎을 넣어서 집 가까이 빈소를 차려둔다. 곧 들담을 깔아 놓은 위에 시신을 넣고 소나무가지 따위로 덮고 이엉, 곧 ‘느람지’를 두르고 떠나 짚으로 엮은 주쟁이를 씌워서 빈소를 마련해 둔다. 전염병으로 병사한 사람은 토롱했다가 그 마을에서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정식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장례를 곧 치르게 되면 그 후손에게 불길하고 그 동네에도 흉사가 생긴다는 속신이 짙게 깔려 있다.⁴⁷⁾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사례이고 일반적으로 바닷가 모래사장이나 산 속에 가매장을 하거나 초분을 만들었다가 정식 장례를 치렀다는 사례도 있는 걸로 보아서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로 보인다. 장례 절차도 생략되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22) 出他 중 사망한 자의 토롱

出他했다가 사망하거나 집 밖에서 사망한 자는 그 시신을 집안에 들이지 않고 장례를

47) 제주도, 『제주문화총서 ①』, 『제주의 민속 I』, 제주도, 1993, pp.360~361.

치르는 풍속이 있다. 지금도 병원에서 병이 위독하여 가망이 없을 것 같으면 임종 직전에 집에 모시고 가도록 권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타 중 사망하면 곧 집 가까운 밭이나 들만에 장막을 쳐 시신을 모시고 장례를 치른다.

만약 상주가 시신을 집안에 들고 싶으면 시신 앞에 식사부터 차려놓고 나서 ‘어딜 갔다가 이렇게 늦었는가? 이제 들어와서 식사하게’라고 평소 산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집안으로 모신 다음 그때부터 장례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러야 한다.

2. 토롱의 方法

토롱은 장례절차 중 첫째, 성복만 치르고 토롱이나 생빈놀을 하는 경우, 둘째, 장례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르면서 토롱하는 경우, 셋째, 봉분까지 만들어 놓은 후 용미·제절만을 만들지 않은 토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토롱하고 나서 첫째, 둘째인 경우는 하루 삼식을 올리며 상을 모셨다가 장례일이 결정되면 일포제를 지내는 상례를 시작으로 장례식을 치른다. 셋째인 경우는 일포제까지 다 지내고 장례 중 장애가 없다면 청명이나 윤달에 택일하여 용미 제절을 만들고 제대로 봉분을 만들어 장례를 마치는 방법이다.

이때 하관제를 시작으로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를 지내어 장례를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여름인 6월에는 장사도 못 치르고, 이사도 못한다는 관습 때문에 토롱을 했다가 6월이 지나서 장례절차를 행하거나 심지어는 겨울 친구간이 되어서야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친구간에는 날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관습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다.

토롱은 산자와 죽은 자 중 누구를 위한 상례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산자를 위한 상례의 성격이 강하다. 즉 망자를 좋은 음택에 모시려는 것은 망자를 위한 것 같지만 좋은 음택에 모셔 조상의 음덕을 보려는 풍수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장례 절차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피하여 토롱하는 것도 자손이 해를 입는다는 속설 때문이다.

따라서 장례는 죽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중심인데 살아있거나 사망하거나 일관된 태도로 부모를 섬기는 효를 재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토롱 사례를 조사하면서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쪽 지역에서는 토룡을 하였던 일을 거리낌없이 자연스럽게 조사에 응하는데 비하여 대정 지역에서는 집안의 부끄러운 일로 기억하고 있는지 토룡 사례를 말하기를 꺼려하였다. 이는 장례 과정에서 망자의 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의 근거도 되고 장례를 절차에 따라 지내지 못함은 자손이 정성이 부족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 본다.

망인의 장사 일을 두고도 장사 일에 일기가 불순하든지, 또는 택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사람이 오죽이나 복이 없으면 땅에 들어갈 날짜 하나를 얻지 못하냐’고 한탄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가면 ‘망인의 복이 좋다’고 칭송의 소리가 높게 된다. 죽은 사람의 복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장사 일의 날씨를 두고도 ‘어! 그 어른 복 좋안, 날씨가 좋다’ 혹은 ‘죽어서도 복 좋다’고 상도꾼들은 그 날의 좋은 날씨를 망인의 복으로 돌리곤 한다.

1) 생빈놀이

‘생빈놀이’이란 사람이 죽었을 때 마땅한 택일이 안 나와 매장할 수 없을 때 치르는 시신 처리의 한 방법을 말한다. 소나무 잎으로 덮어두기도 하는 데서 일명 송빈 막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죽었을 때 제주도에서는 보통 죽은 날부터 헤아려 며칠만에 장사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3일장, 5일장, 7일장 등으로 구분한다. 이럴 때, 그 기일 안에 마땅한 택일이 나오지 아니하면 때에는 ‘생빈놀이’라는 방법으로 시신을 덮어두게 된다.

여름날 같은 때는 대체로 3일장이요 그밖에는 대개 5일장으로 치르나 이것 역시 상주가 출타 중일 때는 시일을 연장해서 7일장으로 치르기도 한다. 흔히 속담으로 들을 수 있는 ‘삼 년 구산에 십 년 택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전에는 묘자리를 찾고 택일을 받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⁴⁸⁾

이처럼 짧은 시일 안에 도저히 장사 택일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생빈놀이’ 방법으로 모셨다. 생빈놀이의 시신 처리방법은 땅 위에 돌자갈을 깔고 그 위에 관을 놓은 다음에 날

48) 제보자 : 구좌읍 상도리 홍성중(68세) 2003년 1월 상도리

솔잎이나 가시나무 등으로 사방을 둘러쌓아 가리워서 쥐 같은 짐승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위에 다시 비가 안 들도록 주쟁이를 씌워 덮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草墳이 우리나라 남해안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최근에도 신안군 도초도, 고금도 등에서 치러졌던 기록으로 보아 濟州島 지방의 생빈놀은 남해안 도서지방의 초분과 같은 이중장제 방식에서 一次葬의 한 방법으로 행해졌던 장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초분을 흔히 한자로 草殯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一次葬 때 대개 짚으로 이엉을 하여 덮는 데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제주도 생빈놀은 짚 이엉이 아니라 생 솔가지를 이용하여 덮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도 外墳[外殯]이라 함은 제일차 장에서 매장하지 않고 시신을 밖에[地上] 둔다는 데서 온 것 같다.

2) 토룡[土壟]

상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 제주의 장례 절차에서는 토룡이라는 장례방법으로 집 주변 야산이나 밭에 봉분 형태로 임시 매장하였다가 장례를 치른다.

이 생빈놀 보다는 관리가 쉽고 기간이 길어져도 큰 어려움이 없어 근래까지 땅에다 매장하기 전 토룡을 하였다. 그런 다음 장애요인이 해소되면 장례를 치러 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였다.

초분보다 토룡을 선호하는 원인은 우선 시신을 관리하기가 쉽고 토룡 기간이 길어져도 어려움이 적고 나중에 뼈가 곱게 육탈이 된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치러진 이중장제의 대표적인 구토룡(龜土陵)을 들 수 있다. 거북이 등과 비슷한 형상에서 따온 말로 지역에 따라 ‘구토령’, ‘구토령’, ‘귀토룡’ 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구토룡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중장제에서 일차장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濟州島에 전래되면서 토룡 또는 구토룡이라고 불리어진 것 같다.

3) 용미·제절 생략한 토룡

장례 절차에 따라 산터를 잡고 봉분까지 만들어 장례를 치렀으나 용미·제절만 생략하였다가 장례 여건이 갖춰지면 봉분을 완성하는 형식으로 매장하는 토룡 방법이다. 요

즈음에도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변형된 장례 방법으로 생각되며, 이 때 음택이나, 장례 택일이 문제가 되면 이 토롱 방법을 썼다고 한다.

이는 濟州島에서만 볼 수 있는 장례 방식으로 장례를 빨리 끝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 죽은 자를 위한 방법이 아닌 산 자를 위한 장례문화로 변천되어 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 토롱의 意味

1) 민속에서 토롱의 양상

우리나라에서 풍수적 사유방식은 탈해 신화에서도 나타난다. 용성국에서 온 탈해가 살만한 곳을 찾다가 지세를 보고 결정을 내린 것이나, 고구려, 백제의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사신도에서도 풍수적 사유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풍수지리는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로 나뉘며 이에 따른 설화도 여러 편 수집되어 음택풍수설화로는 윤치부와 현승환의 조사에서 제주설화집성에 35편, 제주도 전설지에 28편, 제주도 전설에 18편, 남국의 전설에 4편, 남국의 민담에 8편, 한국구비문학 대계 9-1에 4편, 한국구비문학 대계 9-2에 9편, 한국구비문학 대계 9-3에 15편, 학술보고서 제7집에 3편, 학술보고서 제8집에 6편, 국문학보 제7집에 1편, 백록어문 5에 3편 총 134편이 설화가 수집되어 있다.⁴⁹⁾

음택풍수 설화는 사람이 죽고 지관이 풍수지리 원리에 따라 명당을 고르는 과정과 그 결과에 얽힌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들 중에서 실질적인 토롱 설화는 3편이다. <사례 11>은 상주들이 희생하면서까지 명당에 장사를 지내려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사례 10>은 명당에 가서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는 이야기이며 <사례 6>은 명당을 찾아 3년이 나 다닌 상주 이야기이다.

조사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는 대개 명당을 찾아다닌 이야기여서 지금 조사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토롱에 얽힌 이야기는 대개 명당을 찾아다닌 설화임을 알 수 있다.

49) 현승환,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탐라문화』 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p.265.

2) 說話 속의 토롱

사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쾌적한 장소에 살기를 바랐던 원초적인 사상에서 출발한 풍수지리는 땅인의 영혼이 좋은 장소에서 살기를 바랐던 고대인들의 영생불사 사상에서 완성이 되었다.

민간에서 행해지는 귀양풀이나 시왕맞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저승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나 저승에 간 조상을 불러들여 대접하는 제사의례를 통해 조상과 일체감을 공유하는 신앙의식은 조상을 풍수지리설에 따라 좋은 곳에 모시고 그 영향으로 그 발복의 혜택이 미치게 하는데 있다.⁵⁰⁾

조상의 묘를 잘 써서 자손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명당을 찾아서 매장하는 방법이고, 명당은 하루아침에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제주도민들은 장례절차에서 토롱이라는 장례 방식으로 좋은 음택을 구한 사례가 여러 곳에서 설화로 전해지고 있다.

이 설화들은 풍수전설로 잘 알려져 있는데 주로 지관과 관련되어 있다. 이때 지관이 구산을 하는 동안 사자의 시신은 토롱 상태로 매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전적⁵¹⁾의 부친이 돌아가자 토롱하고 장사를 치르지 않았다. 형은 동생이 지관이라 하여 그에게 미루고, 동생은 형이 있으니 하고 구산을 미루었다. 1년이 지나자 형수는 아무리 동생이라도 지관이니 부탁을 하라고 하여 구산을 하였다. 하지만 고전적이 본 묘자리는 땅이 꺼져 있었다. 고전적은 자신의 상복을 벗어 그 꺼진 곳에 놓아 그 위에 관을 넣은 다음 다시 상복을 덮고 장사를 치렀다. 그 땅은 꺼져야만 되는 땅이었다. 즉 그 묘자리는 여자의 하문이 되는 자리였다. 그 덕으로 고전적은 서자이지만 전적 벼슬을 할 수 있었다.⁵²⁾

홍씨 양반 집에서 장사가 났는데 맏아들이 ‘여보, 고 아무가이 우리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와서 산 한자리 봐 주시오’라고 거만하게 명당자리를 요청했다. 고전적은 “좃같은 자식, 뭐 내가 아무리 쌍놈이지마는 네 애비를 좋은 명당을 보려면 나한테 와서, 절도 한 번 하고 집으로 줌 오십시오라고 좋은 말씀을 하여야 하지. 건방진 자식” 하며 거절을 하였다. 둘째 아들이 와도 건방지다면서 거절을 한다. 셋째 아들은 ‘우리 형님네 하는 게 도저히 안 됐다.’고

50) 현승환,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탐라문화』 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p.271.

51) 본명은 高泓進, 조선 영조 때 인물로 의술의 진국태, 집술의 문영후와 더불어 당시의 3명인으로 일컬어지던 지관임.

52)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pp.236-239

한 후, 좋은 음식을 준비하여 가서 절을 한 후, ‘선생님, 와서 저희 아버지 명당 한 자리 봐 주십시오.’라고 한 후 모셔갔다. 그들은 이미 고내봉에 땅을 봐 두었는데 봉황새 형이었지만 그 혈맥이 머리에 있는지 꼬리에 있는지를 몰라 고전적에게 “채는 봉황새 채다. 봉황새 채데 혈이 어디 있수?”라고 묻지만 말을 해 주지 않았다. 하관 시간이 가까워 가니 삼 형제는 고전적에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자 그제야 산터를 봐 주었다.⁵³⁾

위 설화로 보면, 부친의 묘를 쓰고 난 후 그 영향은 서자에게도 미치고 있다. 서자이지만 전적 벼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즉 그 영향이 2대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관은 사회적 신분이 낮았을지라도 사제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관에게 공손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사례도 보여준다. 조상의 묘지 선정이 중요한 문제였기에 이를 담당하는 사제자인 지관은 설사 부모와 자식관계이지만 형제들이 역시 공손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한다.

형이 정혈 방위를 정하라고 하니, 동생은 그 값으로 천냥을 내 놓으라 하다. 형은 동생도 아들인데 아버지 묘를 구산하면서 돈을 받으려느냐며 포기하려 하는데, 형수는 발문서를 주며 동생의 요구대로 하라고 하다. 동생은 문서를 받고, 주판관을 헌관으로 삼고, 소를 잡아 비단 폐백을 갖춰 산제를 지내야 한다고 하자. 형은 다시 돈을 써 주판관을 모셔 토신제를 지냈다. 장사가 끝나자 형이 산소를 지켜야 한다며 혼자만 남겨두고 내려와 버린다. 그날 밤 형의 꿈에 백발 노인들이 나타났는데 자신들의 놀이터를 김지관놈이 천냥을 받아 팔아먹고 장사를 지내게 했다고 불평하는 꿈을 꾸다. 이 말을 들은 동생은 재산 문서함을 형에게 내 놓고 자손이 만 명은 될 것이라 한다. 형이 죽고, 장손이 죽자 80노인이 된 김지관이라도 곡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지관은 장손을 하관하고 난 후는 춤을 추며 노래까지 했다. 그 이유를 묻자, 손자 곧 장손이 명당 터에 묻히려고 일찍 죽은 것이니 다행이며, 이 터는 소가 밟아도 자손 3천명이 될 곳이라 하다.⁵⁴⁾

형수가 아무리 동생이라도 명지관인데 부탁을 해야 한다고 형인 남편에게 권하는 것으로 보아 사제자로서의 지관이 권한을 엿볼 수 있다. 지관 자신에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관들이 타는 말안장에까지 명주 바지 저고리를 입혀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마치 돌아가신 망인을 위하듯이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설화 인식은 먼저, 지관에 대한 공경심이 하나요, 다른 하나는 명당터

53) 김영돈 외, “고전적 III”, 『제주설화집성(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pp.383-386.

54) 현용준, 전계서, 1976, pp.247-257.

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셋째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자손에게 그 영향이 이어짐으로써 조손이 관계된다는 것이다.

조상과 자손과를 연결시켜주는 지관은 정혈을 찾아가는 동안은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심방은 쟈상을 배설하여 제물을 올리고 노래와 춤으로써 신령을 청해 들여 쟈상에 앉힌 후, 제물을 잡수도록 권하여 소원을 빌고 신의 의사를 탐지하고, 마지막에 신령을 돌려보내는 의례에서 신령과 인간의 의사를 중개하고 있다.⁵⁵⁾ 심방이 신과 기원자 사이에서 기원자의 뜻을 신에게 알리고, 신의 뜻을 기원자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듯이 지관은 자손과 조상사이에서 조상의 음덕이 자손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조상의 음덕은 어느 범위까지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현지관이 사례를 보자.

성산면 온평리에 현지관이 살았는데 그는 유명한 신안이었다. 그는 조부의 뗏자리를 본적이 있는데 이 묘가 증손 때 이장한다는 것까지 알아 맞췄다. 또한 성산면 고성에서 유명하다는 정지관과 어떤 집의 뗏자리를 찾으러 가려는데 이웃집에서 온 여인이 무얼 빌러 왔는지를 알아 맞추는 것까지 그의 능력은 뛰어났다. 어느 해인데 체백이 없는 봉분을 벌초하는 무리가 있어 그 사실을 알려준 일까지 있다. 현지관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 ‘개미동산’이라는 곳에 뗏자리를 보고 ‘내가 죽거든 여기 묻으라. 그리고 5대손이 죽거든 바로 이 곁에 묻도록 전승시키라.’고 유언했는데, 그 이유는 자손의 수가 많아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현지관의 자손들은 개미처럼 번창하였다.⁵⁶⁾

현지관 전설에서 알수 있는 것은 조상 묘의 음덕은 4대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4대 이후 그 영향이 소멸되니 다시 5대손을 매장하여 그 영향이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강한 조상숭배 의식은 매장 장소뿐만 아니라 매장 시간까지 중시한다.

<부대각의 부친을 시간에 맞춰 매장하고 돌아오는데 상두꾼들을 양 손에 잡고 계곡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솟았다. 며느리가 몰래 남편을 살피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음을 알고 인두로 지저버렸다. 이 소문이 나자, 관가에서 부친의 묘를 파 보니

55)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p.48

56) 현용준, “현지관”, 상계서, pp.244-247.

시체가 용이 되어 금방 날려는데 날개가 다 자라지 못하여 용진굴까지 밖에 날지 못하고 거기 떨어져서 죽었다.⁵⁷⁾>

지관은 명당을 찾아주면서 매장 기한을 정해 두기도 한다. 그 기간 동안에 떠나지 않아 망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부자가 되었다가 3대가 되니 망했다고 한다.⁵⁸⁾

명당은 육지에만 있지 않다. 바다에도 있다.

제주도의 부자가 고기잡이 갔다가 태풍을 만나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살아남는다. 아들은 서울에서 동냥하며 살다가 청나라를 왕래하는 진상선의 선원이 된다. 우연히 청나라로 팔려가는 처녀와 관계를 맺었는데 공교롭게 그 처녀는 왕후가 되어 왕자를 낳았다. 그 아이가 청나라 황제가 된다.⁵⁹⁾

조상의 제삿날이 되자 묘소에 거주하던 조상이 제사 먹으러 찾아온다는 설화는 조상과 후손이 상호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조의 묘를 쓴 후 손주 대에 태어난 오별장은 쌍동공의 인물로 산운을 탄 양반이다. 오별장 선조의 묘를 쓰면서 ‘저 오름만큼 한 자손이 나거든 저 산을 이묘하라’고 했는데 현재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묘를 하지 않았는데 망했다⁶⁰⁾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묘를 하라는 지관의 말을 듣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바라다가 오히려 망했다는 점은 풍수를 통한 교육적 효과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복을 갖고 태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 사는데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만큼 살게된다는 것으로 운명 결정론적 사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어겨 운명에 도전하는 것은 자연에 도전하는 것과 다름 아니며, 그 결과는 망하거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 이러한 운명론은 다음의 설화에서도 드러난다.

57) 김영돈외, “장사나케 한 명당자리 용진굴”, 전계서, pp.975-978.

58) 김영돈외, “어떤 신안”, 상계서, pp.939-940.

59) 김영돈외, “제주 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됐던 사연”, 상계서, pp.830-834.

60) 김영돈외, “오별장”, 상계서, pp.639-643.

강훈장은 고전적 다음일 정도로 풍수지리에 밝았다. 하지만 부인이 죽었는데도 산터를 보지 않았다. 아들이 부탁하고, 며느리가 닭 1마리를 대접하자 그에 맞게 산터를 봐 주었다. 하지만 별로 맘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은 소를 잡아 먹일 터이니 다시 산터를 봐 달라고 했으나 ‘하늘의 천점인데 그것밖에는 안 된다. 너희들 성의가 부족하여서 어찌 할 수가 없다’⁶¹⁾

그 외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이 쌓여서 산터를 구하지 못해 토룡을 한 이야기, 산터를 잡았는데 그 산터에 맞는 택일을 기다려 토룡을 했다든지, 명당터를 찾아서 토룡해 놓고 3년 동안 명당을 찾아 다녔다는 제주민들이 陰宅風水이야기에서 명당은 곧 후손이 발복이라는 등식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61) 김영돈외, “강태종 훈장”, 상계서, pp.607-618.

IV. 教育的 意味

喪·葬禮 節次의 教育的 意味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장례관행으로 남아 있는 상·장례 예절이나 장례형태를 통하여 죽음이 개인이나 사회에 끼치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한국 고대 역사에 장례나 죽음의 처리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으나 죽은 후에도 영혼은 생전과 같이 살아 갈 것이라고 믿기도 하였다. '육'은 흙과 함께 소멸하고 '영'은 정토나 윤회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죽음이란 무서운 것으로 관념화되어 죽은 조상은 살아 있는 후손들에게 길흉화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내세관 형성과정에서 신앙이나 종교의 영향력은 지대하며 이에 따른 주검의 처리방식과 장례의식 또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喪·葬禮란 한 마디로 주검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하는 의식절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산 자가 산 자를 위해서 행하는 의례절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의례절차를 통하여 죽음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가족과 구성원이 서로의 소속감과 일상 생활 속으로 돌아가는 산 자의 의식행위라고 할 수 있다.

濟州島 상·장례절차 사례를 통하여 초등학교 국어에서는 구비문학에 접근하여 설화에 나타난 문학적 체험을, 도덕에서는 장례절차에 내포된 '孝와 禮'를 바탕으로 한 윤리교육을, 사회에서는 미풍양속을 파악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교육 목적을 교과와 관련지어 달성해야 할 것이다.

1. 토롱에 담긴 說話 教育的 意味

구비문학 교육에서 설화는 문학교육이 한 분야이기 때문에 문학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제주의 설화, 민요, 민담을 즐겨 읽고 선인들의 지혜를 본받도록 하며 보충·심화 학습을 위한 자료로 우리 고장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폭 넓게 읽도록 한다

위와 같이 운영 방법⁶²⁾을 정하여 說話教育을 중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口碑文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의 네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구비문학의 개념 및 기초 이론을 구비문학 작품에 적용하여 구비문학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른다.

구비문학의 개념 및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깊이 음미하는 ‘감상’이 구비문학 교육의 일차적 목적이다. 따라서, 구비문학의 개념 및 기초 이론 학습과 작품의 분석, 종합은 작품 이해를 위한 작업이고, 이해는 감상을 위한 절차이다.

둘째, 구비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하여 체험의 확대와 정서의 순화를 기하고, 상상력, 창조력, 통찰력을 기르고 심미성과 도덕성을 함양한다.

학생들은 구비문학 작품을 배우고 즐기며 읽는 동안에 문학적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생활 영역을 넓히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으며, 작품을 통하여 정서를 곱고 아름답게 다듬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구비문학은 상상력의 소산이므로 학생은 이를 통해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상상력은 현실의 사태를 초월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창조력을 기를 수 있다. 또, 구비문학은 삶의 모방이므로, 작품 속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비판하면서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서 통찰력이 길러진다.

구비문학은 말로 표현된 예술이므로 이의 교육을 통해 세련된 언어능력과 함께 미적 인식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심미감이 함양된다.

구비문학 작품은 또한 인간미의 중요성을 깨우치며, 정의감, 의지력, 책임감, 동정감 등을 갖게 한다. 그래서 구비문학 교육을 통하여 도덕성을 기를 수 있다.

셋째,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한다. 바람직한 인간이란 문화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한국문화의 관점에서 知, 情, 意의 세 가지를 어느 수준까지 골고루 갖춘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지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능률과 실

62) 제주도교육청, 『제주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01, p.26.

질만을 숭상하며, 상대적으로 知, 情, 意인 면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현대인은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윤리, 도덕은 그 기준을 잃고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인들이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 것과는 관련이 된다.

이를 극복함으로써 口碑文學 교육의 둘째 목표에서 설정한 정서 순화를 기하고, 통찰력, 심미성, 도덕성 등을 함양함으로써 정의적인 면을 북돋워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지·정·의를 골고루 갖춘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다. 口碑文學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 준 생활 유산이다. 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풍속, 습관, 생활, 사상, 신앙, 가치관, 꿈과 소망, 웃음과 지혜 등 전통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용해되어 있다. 이런 이유도 구비문학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며,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네 가지 목표는 口碑文學의 교육적 효과에 토대를 두어 설정한 것이다. 구비문학 교육은 이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⁶³⁾

濟州島의 장례절차 중 토롱 과정에 나타나는 원인이나 과정들은 설화로 이야기될 수 있는 소재들이어서 설화자료로 재구성되어 이야기 자료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설화는 고대로부터 전승민이 창작하고 전승민이 청자가 되어 오랜 세월을 두고 전승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필요한 요소는 삭제되고, 시기에 맞게 제재가 바뀌며 흥미와 교훈적 요소가 녹아들어 삶의 경전으로 변모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설화는 우리 선조의 삶과 정신의 정수라 할 수 있다.

2. 토롱의 倫理的 意味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도덕 교육과정에서도 제주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고장의 선인들의 미풍 양속을 이어받아 협동·근검·절약하는 체험 학습의 기회를 넓힌다.

63) 김기창, 『한국구비문학교육사』, 집문당, 1992, pp.26~29.

이것은 국가교육 목표를 수용하여 지침을 정한 것으로 구비문학교육뿐만 아니라 글쓰기와 논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지침⁶⁴⁾에서 강조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고 일괄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문화의 모든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즉, 언어, 문학, 생활양식 등이다.

토롱 역시 상례 풍습에 속한 것이고, 조상과 후손과의 연결을 도모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매장 하기에 앞서 토롱 하는 것이 조상의 주검을 정성스럽게 다루고, 그 영혼을 바르게 저승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후손의 정성의 표현이다. 이는 조상으로서의 후손의 대접을 받는 것이 되고, 후손은 조상의 혜택을 바라는 것이다. 즉 조상과 후손의 상호소통과정인 썸이다.

그런데 조상이 후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명당에 묻힘으로써 후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것이다. 자식 열을 낳아도 의료기술 부족으로 삶을 유지하기 어렵던 시기에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신이었고, 그 신의 역할을 조상이 대신한 것이다. 그래서 조상은 자손의 생명을 담보한 썸이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으로 단일 조상이라는 관념 속에 있는 한 이는 단군이 우리 생명의 안전을 담보한 썸이 되는 것이다. 이는 상보적으로 조상의 주검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신체와 영혼을 다루게 되었으니 넓게 보아 생명존중 사상의 표현이라 할 만하다.

이제 지침에 따라 토롱의 윤리적 의미를 해석을 해 보면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생명존중의 사상이다. 죽은 자의 신체와 뼈를 소중히 여긴다. 사람이 비록 사망했다라도 그 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매장하려 하고, 적기에 매장이 어려우면 토롱 했다가 장례 절차에 따라 매장한다. 이것이 바로 영혼 불멸의 상징이고 재생을 기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화장을 하면 육신이 사라지고 조상과의 연결이 단절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 결과 명당을 찾아서 장사지내려 하고 조상과의 인연을 중히 여겨 명당에 모시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음택을 구해서 모시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장례식이 병원 영안실에서 치러지고 화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장례문화도 화장으로 바뀌고 있어 전통문화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64) 제주도교육청, 전계서, 2001, p.26.

둘째, 토롱은 ‘孝와 禮’에 바탕을 둔 조상숭배의 사상이다. 부모를 위시한 조상은 자기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를 종교적인 대상으로 영원히 추모한다. 그리고 종교적인 상징이 무덤인 것이다. 그리고 후손과 지속적인 유대를 통해 영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孝와 禮’를 다하는 것은 상례를 절차에 따라 상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장례를 치를 때 장애가 생기면 그 장애를 토롱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제거하고 나서 장례식을 치러 조상에 대해 ‘孝와 禮’를 다하였다.

그러나 현대에서 ‘孝와 禮’를 다하는 방법은 생존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孝를 실천하여 형식적인 면이 아닌 실질적인 ‘孝와 禮’를 다하는 교육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셋째, 제주의 장례에서 토롱은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산 사람에게 대한 예우와 같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일반인들도 집을 마련한 후 이사하려고 택일을 할 때 ‘올해는 그쪽 방향은 막혀서 이사를 못한다.’고 하는 점괘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 다른 곳을 거쳐 이사를 한다든지 그 장애요인을 해소한 후 이사한다. 제주의 장례에서 토롱은 이처럼 망자에게도 적용되어 새로운 유택을 마련해 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미풍양속을 전승하는 윤리적인 소재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3. 토롱의 社會的 意味

제주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사회 교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학년별 내용을 고려하여 제작된 지역 교과서 ‘우리고장 제주도’ ‘향토지’ 기타 지역 사회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년별로 지역에 맞게 교과서를 만들고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⁶⁵⁾ 이는 우리고장 제주도, 향토지의 경우처럼 현재의 모습과 마을의 역사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의 민속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 중

65) 제주도교육청, 상계서, 2001, p.27.

하나가 상례인데 이는 학생들에게 생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철학적 교재이며, 마을의 협동과정, 봉사의식 등을 보여주는 윤리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인간이 삶을 마감할 때는 분리의례를 치른다.

이 과정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과정과 육신과 영혼의 분리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는 과정에서 후손이 조상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가 등을 교육할 수 있었다. 현세에서 가족과 더불어 살면서도 이웃의 중요성, 가족의 중요성, 조상을 왜 모셔야 하는가 등에 의문을 품은 후손들에게 자신과 가장 가까운 조상과의 이별을 앞두고 치르는 의례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상이 나면 부계에서는 8촌까지, 모계에서는 4촌까지 소위 친족들이 모두 참여하여 장례를 치른다. 법률적으로는 위의 범위가 친족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주에서는 마을마다 이러한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 이웃하는 사람,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람, 망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등 망인과 인연이 있는 자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문상을 한다. 이것은 오늘날 이웃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현실에 비하면 놀라운 일에 속한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윤리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재료로 쓸 수 있는 점이다. 그 외 토롱을 통해 제주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주의 장례 절차 중 토롱에는 장자 및 父系 中心的 가치가 들어 있다.

제주의 장례 절차는 철저한 장자 우선주의로 모든 절차가 장자의 결정에 따른다. 정식 장례를 치르지 못해 토롱을 할 때도 장자의 선택을 우선하며 택일도 장자 중심으로 날을 잡는다.

특히 상주가 문상을 받을 때도 장자가 우선하며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철저한 부계가족 위주로 진행됨을 볼 때 부계중심적 가족의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는 핵가족으로 인해 장자 개념이 희박하므로 가족들의 협의에 의해 장례를 치르며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 교육자료로 삼아야 한다.

둘째, 토롱은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살아 있는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비록 생명을 잃었지만 산 사람과 같이 취급하고 예절을 갖추어 상례를 치르는 것이다. 생자도 집을 이사하거나 집을 지을 때 택일하여 방향이 막히면 다른 곳을 경유하여 이

사하듯이 죽은 자의 거처를 만들기 위한 장례에서도 토롱은 저승으로 이사를 위한 절차의 한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생자의 이사와는 달리 죽음에 대한 태도는 기쁨의 의례가 아닌 슬픔의 의례라는 것이다. 망자를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러야 하고 이 점을 교육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장례 절차에 나타난 토롱은 산 자를 위한 상례 성격이 강하다.

제주의 전통장례에 나타난 토롱은 망자를 위한다는 표면적인 이유 이면에 산 자를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토롱은 죽은 자와 산 자가 연결되어 교류한다는 전제 하에서 장례절차에 따라 망자를 명당 터에 모시는 의례이다. 거기에는 조상의 음덕으로 후손이 잘 될 것이라는 의미와 조상을 좋은 곳에 모시지 못하면 후손이 해를 입을 것이라는 풍수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산 자를 위한 상례 성격이 강하다.

넷째, 용미·제절을 생략한 토롱은 지하세계에 가입하는 통과의례 절차상 중요한 과정을 생략한 모습을 보여준다.

음택을 구하고 망자를 땅에 매장하려면 토지신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망자의 四柱나 상주의 사주·택일 등의 장애로 정식 장례절차를 밟아 매장을 못할 때는 토롱이라는 편법을 쓴다. 즉 토지 신에게 신고하지 않고 매장하여 용미·제절을 생략한 일종의 암장을 한다. 그 후 택일이 되면, 즉 지하세계에 가입하는 장애가 소멸되면 신의 영역으로 가입하는 통과 의례의 절차를 밟는다.

다섯째, 음택을 구하지 못하면 초분을 만들거나 야산이나 밭에 토롱을 한다.

전통장례 절차에 보면, 권핍[權窆]이라 해서 풍수설에 따라 좋은 산터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가매장하는 절차가 있다. 제주에서는 날씨가 상주의 부재로 경황이 없어 음택을 구하지 못할 때는 주변 야산에 토롱을 하는데 이때는 상여막을 이용하지 않고 초분이나 경작하지 않은 빈 밭에 토롱을 했다가 장례를 치른다.

여섯째, 절기가 맞지 않은 경우 봉분만 만들고 용미·제절을 만들지 않은 토롱을 한다.

제주에서는 6월에는 이사는 물론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다는 관습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다. 부득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는 봉분을 만들고 ‘용미·제절을 만들지 않는 형식’의 봉분을 만들어 토롱 하였다가 7월이 들면 용미·제절을 만들어 봉분을 완성시킨다든지 청명이나 윤달, 신구간에 날을 잡아 봉분을 마무리짓는다. 이 풍습은 요즘

에도 지켜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관습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어 오늘날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V. 結論

우리들의 삶은 다양성과 복합성이 있어서 행복과 즐거움, 슬픔과 고통의 양면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죽음은 곧 영원한 이별이므로 이에 따른 슬픔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강문유(1990)는 상여노래에 나타난 주제의식에서도 크게 망자와 생자 사이에서 오는 슬픔, 일가 친척들에게 부탁하는 효, 인생은 길게 살아야 단 80이라는 인생 무상으로 나누고 있다.⁶⁶⁾

이런 인생무상을 느끼게 하는 죽음의 상례는 흉례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닥친 통과 의례로 거행된다. 절차를 통한 의의를 살펴보면 사람은 비록 사망했다라도 그 체[體]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바로 영혼 불멸이고 재생을 기약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르려는데 어떤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할 경우 제주의 장례에서는 第一次 葬인 토롱이라는 과정을 통해 절차에 따른 장례를 치러 망자에 대한 禮를 다하였다.

조상의 음덕을 받는다는 조상숭배의 사상은 조상은 자기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종교의 대상으로 추모하며 죽은 자에 대한 예의는 살아있는 사람과 같게 예우한다. 그러나 상례는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슬픔 의례이며 줄곡이 끝나야 비로소 길례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토롱의 상례에는 부계중심의 가족주의적 가치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가치를 오늘날 어떻게 전승 발전시키고 교육현장에서 지도되어야 하는지를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濟州島의 상·장례는 인간의 생명을 윤회하거나 부활한다고 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조상을 숭배의 대상인 신으로 보게되고 자손은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옛 어른들이 산에서 날이 저물어 무덤 안에서 잠을 잤던 것도 산담 안을 사자의 세계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자도 귀신이 영역으로 들어가면 잡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66) 강문유, “제주상여노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36.

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죽은 조상이라도 후손들에게 추모의 대상이 됨으로써 조상의 사후 세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명당 존중사상이 발생한 것이고, 그에 따라 남은 육신의 잔재인 뼈가 잘 유지됨으로써 자손에게 죽어서도 복을 주거나 해가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명당에 조상을 모시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중장제에서 제 일차 장인 토롱이라는 제주의 장례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재례를 통하여 자손과 유대관계를 맺는 '孝' 사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의례속에서도 분리, 과도, 가입이라는 시간인식이 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토롱은 분리의례 중 가입기의 영역에 속한다. 즉 토롱의 상태에서는 사자의 세계에 가입이 되지 않고 무덤에 용미·제절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죽음의 완성되어 지하세계에 가입하는 것이다.

상·장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는 의례이므로 무엇보다도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세속주의와 형식주의를 탈피하여야 한다. 전통적 미풍양식을 간직한다고 하여 과거 형식적인 상·장례의 모습을 고집하기보다는 상·장례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장례문화는 경건하게 죽음을 애도하며, 조상묘소를 관리하여 효 사상을 높일 수 있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다.

상·장례의 경건성과 효사상 고취는 평소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 즉 초등학교의 국어, 도덕, 사회 교과과정을 통해 건전한 장례문화의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장례는 혈연중심의 공동체인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라나는 후손에게 효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상·장례를 포함한 가정의례관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전한 상·장례가 생활화되도록 지속적인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장례의 간소화 및 제도개선 노력은 진정한 사회 문화적 의미의 회복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장의사 장례방식은 전에는 친족 공동체가 약한 도시지역에서

67) 이필도, 『바람직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접근』, 입법조사연구, 1999.

많이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장의사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친족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소득수준이 향상으로 대다수의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마지막 선고를 받고서야 집에 가므로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거나, 장의사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통 상·장례 절차에서 3년 상을 지낸다든지, 들짐승들이 묘를 파헤칠까 봐 움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는 방식의 효도는 현대 사회에서 별 意味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孝’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12년에 발표된 <화장취제규칙(火葬取締規則)>에 의하여 대도시에서 화장장과 공동묘지가 대도시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며, 또한 사회운동단체의 합동장이나 사회장이 거행되기도 하였다. 1934년에 발표한 <의례준칙>과 1961년의 <의례준칙> 1969년의 <가정의례준칙>의 제정 등은 상·장례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장제가 간소화된다고 해서 사자처리를 쓰레기 처리처럼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장례문화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여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현대적 의미에 알맞은 장례문화를 탄생시켜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장례문화는 관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실행이 전제되는 與件造成이 이루어져 그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도적 개선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시민운동을 통해 의식개혁이 선행될 때 건전한 장례문화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세상이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장례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장례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여 왔고, 각 시대의 생활을 함축적 의미로 절차나 의식에 포함되어 고유한 전통관행으로 남아서 다시금 전통의 재창조를 이루며 변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공공적 장례의미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濟州島에서 행하여졌던 토롱은 이중장제의 第一次 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후손들이 복을 받으려고 명당을 찾는 중간과정으로 이용되었음을 풍수설화 이야기로도 알 수 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나쁜 땅을 피해 좋은 땅에 모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 편한 집에 모시는 이치와 같으므로 아름다운 ‘孝’ 정신이다. 하지만 묘를 잘 써 조상의 음덕을 보자는 식의 풍수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에서조차 뭘 얻어보겠다는 生者의

이기적인 생각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상의 묘소를 호화분묘로 만들면서 주변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든지 하는 행동은 그릇된 ‘孝’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2·3, 1980.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2. 단행본

김기창, 『한국구비문학교육사』, 집문당, 1992

김용덕, 『한국의 풍속사 I』, 도서출판 밀알, 1994.

박만규·임영진·나경수·栗本吉基, 『호남과 오끼나와의 문화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1999.

이필도, 『바람직한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장철수, 『옛 무덤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5.

제주도, 『제주의 민속 I』, 제주도, 1993.

_____,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방안 연구』, 제주도, 1994.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진성기, 『제주도 세시풍속』, 교학사, 1976.

_____, 『남국의 금기어 연구』,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97.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 도서출판 예전사, 1986.

최운식·김기창, 『전래동화 교육론』, 집문당, 1988.

편집부, 『가례서식 백과』, 은광사, 1981.

현용준, 『제주무속연구』, 집문당, 1992.

A.반 겐넵,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2000.

3. 논문

강문유, “제주상여노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영돈, “濟州道民의 通過儀禮”, 『한국민속연구선』, 일조각, 1982
- 이두현, “葬制와 關聯된 巫俗研究”, 『한국문화인류학』 6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73.
- 제주도, “제주도민의 통과의례”, 『제주의 민속 I』, 제주도, 1993.
- 제주도 교육청, 『제주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제주도교육청, 2001.
- 최길성. “풍수를 통해 본 조상숭배의 구조”, 『한국문화인류학』 16집, 1984,
- 현승환, “제주도 상·제례의 절차와 신앙적 의미”, 『탐라문화』 17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 연구소, 1997.
- _____,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탐라문화』 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 _____, “연명무가연구”, 『백록논총』 제2집,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2000.

<Abstract>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orong’ in funeral-burial
service procedures on Jeju Island**

Ko, Jung-ha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Seung-hwan**

Humans receive death in comfort or with fear, according to their attitudes toward death. Some people embrace religion, believing in life after death. They also prepare their own shrouds and graveyards in advance, which represents their view of life and death. Funeral-burial services, which involve all information on the world-view as part of our traditional culture, include all procedures that are simulated processes of departure between the deceased and their descendants.

The funeral services of Jeju Island have been recognized as rites of passage and considered of importance. The method of dealing with the dead is burial on Jeju Island, which is related to some primitive religion such as the theory of feng shui, belief in mountains and ancestor worship. The deceased, not disconnected with their descendants, provide happiness to them, according to the theory of feng shui. The descendants, in return, conduct elaborate funeral services and these relations continue for four generations.

Burial is divided into the first burial and the second one. The first burial is a provisional burial, which is called ‘Torong’ on Jeju island. ‘Torong’ is derived from

the notion that man consists of the body and the soul, and that man dies entirely when the soul enters the other world. 'Torong' is a tentative burial during which time the practitioner of feng shui tries to find out a good graveyard that can connect the deceased with the descendants. The second burial is performed when a good burial site is found by the practitioner.

'Torong' has been studied only partially, and no attempt has been made to examine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The practice of 'Torong' is now vanishing, so studies of 'Torong' must be made to understand the aspects of Jeju Island's cultu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ansmitting pattern of the people on Jeju Island by examining the situations, procedures and methods of 'Torong' and the way it has changed.

Funeral-burial services, which hold our national tradition and emotion, are generally conducted on the basis of Confucianism. Confucianism defines funeral-burial services as one of the four rites that people must go through during their lifetime. Accordingly, the rites of Jeju Island does not differ greatly from those of the mainland.

Jeju Island shows differences in that all the offspring are responsible for the funeral rites. As a result, the property is evenly distributed to each of the offspring. But the eldest son plays a leading role in the rites in Seogwipo and Namjeju-gun.

The departed soul is thought to pass through twelve doors to reach the other world. While the soul is going to the other world, the previous behaviors of the deceased and the devotion of the offspring are important, because they determine whether the soul can enter the other world. When the soul cannot enter the afterlife, it drifts about and enters some other person's body, which causes misfortunes.

In order to be blessed by the deceased, descendants must spend much time in finding a good graveyard. This process made 'Torong' generalized on Jeju Island, which was influenced by the theory of feung Shui.

Funeral-burial services are the procedures that have been devised to deal with corpses, through which the living descendants find meaning of life and death and a sense of belongingness as members of a family.

he burial rites include separateness, transition, and joining process, and 'Torong' belongs to the joining process. During this time, the soul of the deceased is separated from the body, but not yet in the afterlife and it does not belong to the domain of death. Death is complete when the second burial is performed after finding a good graveyard.

On the basis of the traditional funeral-burial services of Jeju Island, the subject of the Korean language can provide students with literary experiences, the subject of ethics can teach filial duty and the subject of society can succeed to and develop the good morals and manners. Accordingly, a positive interpretation of Confucianism and education of funeral-burial services are now essentia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4.